DEC 6 1982

DAILY

The Korea Times Toronto

No. 998 1982년 12월 6일(월) 1025 DUPONT ST. TORONTO, ONTARIO M6H 1Z7 (416) 533-2361 Monday, December 6, 1982

EAST ASIAN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LIBRARY 130 St. George Street 8th FLOOR TORONTO, CANADA M5S 1A5

한국일보 토론토

토론토발행인 : 김명규
편 집 인 : 김운영
인 쇄 인 : 박정서
광 고 국 장 : 송광호

조성옥학술재단이사장 환영만찬

"한국연구는 한·카관계의 기초"

햄총장 학과설치중요성 강조

◆제임즈·햄토론토대학총장

한국에 대한 이해는 캐나다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는데서 토론토대학의 한국학과 설치의 필요성이 강조된다고 1일 제임즈·햄 토론토대학 총장이 말했다.

이날 밤 하오 6시부터 토론토대 캠퍼스내 하트하우스에서 조성옥 한국학술진흥재단이사장의 토론토방문을 환영하기 위해 한국학파후원재단이 마련한 강연및 만찬의 밤에서 햄총장은 한인 커뮤니티와 대학이 힘을 합쳐 한국학파를 설치해야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교민 70여명이 참석한 이날 모임은 윤여화후원재단 이사장의 사회로 햄총장, 조성옥박사, 귀소 UT동양학부부장, 박영철 부총영사의 연설이 있었고, 한국학파목을 UT에 처음으로 설치하는데 공이 큰 브라운·리 전 동양학부부장에 대한 공로표창이 있었다.

리교수는 5, 6년전 처음으로 한국학파목이 생길때만 해도 20~30명이었던 학생수가 지금은 150여명으로 늘어났다는 것은 놀라운 발전이며 한국과 캐나다 양국이 어떠한 관계에 놓여있던 교육관계는 두나라 이해의 기초가 된다고 강조했다.

후원재단은 이날 브라운·리교수에 도자기를, 조성옥박사에 에스키모산 석제품을 선사했다.

이날 조박사는 내년중 한국학과설치에 대해 최선을 다하겠지만 문제는 액수의 고하를 막론하고 교민들의 한국학과설치에 대한 열망이 표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모임에는 배응진, 유재신등 두 한국인교수와 리차드, 다가시마, 화이트교수등 UT동양학부 관계자들이 거의 전부 참석했다.

토론토대학 한국학과 후원재단은 한국에 특히 관심이 깊은 햄총장이 오는 6월 이임하기 전 한국학과(Korean Studies Chair)의 설립을 마무리짓기 위해 내년초 범교민적 모금운동을 벌일 계획이다.

하와이대, 하바드대등 미국 몇개 대학이 한국학과를 가지고 있으나 토론토대에 한국학과가 설치될 경우 학생수가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교민이 주동이 되어 한국학과가 설립되는 첫 케이스가 된다.

이날 모임에 참석한 한 교민은 UT에 한국학과가 설치되면 정확한 한국을 캐나다사회와 교민 2세들에 전할 수 있음은 물론 교육·문화적 관계를 통한 한·카관계의 정치적, 경제적 유대의 기초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다는 데서 교민, 한국정부, UT등이 힘을 모아 한국학과 설립을 추진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후원재단의 윤여화 이사장으로부터 공로표창을 받는 브라운·리 UT 전 동양학부 부장.(왼쪽)

레바논에 파병 안해

한국, 내외정세 감안 결정

(서울2일=연합)한국정부는 레바논에 국제평화유지군의 일원으로 한국군을 파병 안하기로 결정하고, 이같은 결정을 2일 레바논정부에 통보했다고 외무부가 신문보도용 자료를 통해 발표했다.

이 자료에서 외무부는 레바논이 국제평화유지군에 한국의 참가를 요청한 것은, 한국으로서는 "대단한 영광"이지만, 한국정부로서는 현국내외 정세를 감안할 때 한국군을 외국에 파견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외무부는 이어 "불파병 결정에도 불구하고 한국정부는 레바논의 아민·게마엘 대통령의 지도력과 평화적 해결과 상호화해를 통해 레바논의 주권과 영토를 보존하려는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고 강조하면서, 레바논의 재건과 평화회복을 위해 한국정부가 다른 분야에서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다짐했다.

레바논정부의 공식파병요청은 지난11월7일 에리·사렘 외무장관에 의해 문창화주레바논 대사를 통해 한국정부에 전달되었다.

현재 레바논에 주둔하고 있는 국제평화군은, 프랑스, 이태리, 미국의 3개국에서 파견된 4,00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게마엘 대통령은 지난10월 이들 3개국을 방문, 평화유지군을 증원할 필요성을 역설한 후, 한국, 영국, 네델란드, 스웨덴의 4개국에 파병을 요청했다.

한편 외신에 의하면 레바논은 한국에 1개사단 병력을 금년 크리스마스 이전에 파병해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국 마라톤 우승

아시안게임 24년만에

김정곤선수, 2시간 22분 21초

(뉴델리 2일-한국신문공동취재반)한국은 제9회 아시안게임 마라톤을 제패, 24년만에 우승의 영광을 되찾고 「마라톤 한국」부흥에 전기를 마련했다.

한국의 김양곤 선수는 2일 뉴델리의 자와하를·네루스타디엄을 출발, 42.195Km를 돌아 들어오는 코스에서 종반 4~5Km를 남기고 일본·북한등 12명 선수를 추월, 2시간22분21초의 기록으로 1위로 골인했다.

현재 아시아의 마라톤은 일본, 북한선수들에게 독점되어 왔다.

코스초반까지 선두그룹에서 약2Km 뒤져 달리던 김선수는 코스 마지막에 네루스타디엄을 한바퀴 도는 동안 선두 일본의 후미야가와 인도의 쿠카마등을 제치고 1위로골인, 5만관중의 환호를 받았다.

한국 마라톤은 베르린올림픽의 손기정, 보스톤마라톤 서윤보, 58년 도꾜아시안게임 이창복의 우승이후 퇴보상태에 있었다. 김선수의 이번 기록은 세계기록에는 훨씬 뒤지나 인도의 더운 날씨를 고려할때 호기록으로 평가되고 있다.

김선수는 마라톤계에서는 신인으로 금년에 22세이며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체육과 3학년에 재학중이다.

대회를 2일 남긴 현재 한국은 금 19개로 여전히 3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북한은 금 14개로 여전히 4위를 유지하고 있다.

김총리 중남미 순방

(서울3일=연합)김상협 국무총리는 10일간 중남미 3개국을 공식방문하기 위해, 3일 김포공항을 떠났다.

한국 국무총리로서 남미방문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총리는 6일부터 10일까지 콜롬비아, 14일까지 페루, 16일까지 칠레를 차례로 순방한 후, 미국의 LA를 거쳐 23일 귀국한다.

이들 3개국 방문동안 김총리는 콜롬비아의 벨리사리오·베탄쿠르·쿠아르타스 대통령, 페루의 페르난도·베라운데·테리 대통령, 칠레의 아우구스토·피노체트·우가르테 대통령등과 만나 상호 관심사를 논의할 예정이다.

김총리의 남미방문에는 부인과 서상철 동력자원부장관, 노재원 외무차관등 9명의 공식수행원과, 대한무역진흥공사(KOTRA)윤자중사장을 포함, 8명의 실업계 대표들을 수행한다.

社說 새 고등학교 과정의 의미

온타리오주 교육성은 지난주 고등학교용 교과과정의 개편을 발표하였다.(토론토·한국일보 12월2일자)

개편의 내용중 특히 우리의 주목을 끄는 대목은, 고등학교를 졸업하는데 필요한 필수과목의 수를 현재의 9개에서 16 과목으로 대폭 늘인 대신, 선택과목의 수를 줄인 점이다. 그리고, 개편된 교과과정을 좀더 자세히 들여다 보면, 필수과목군은 영어, 수학, 과학을 핵으로 하는 기초과목(Basics)을 중심으로 짜여있으며, 이번 개편에서는 대체로 이들 기초과목이 종전보다 강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84학년도 가을학기에 9학년에 진학할 학생들부터 적용될 이 새 교과과정에 의하면, 영어 5, 수학2, 과학2의 기초과목이 필수로 요구되고 있다.

이같은 교과과정의 개편이 한인 이민사회에 주는 의미는 무엇이겠는가?

우선 우리는 새 교과과정이 채택하고 있는 "기초과목으로 돌아간다.(Back to Basics)"라고 하는 교육철학 내지 교육의 사조를 간파해서는 안될 것이다. 이 입장에서는 "학습은 즐거워야 한다", 또는 "학습은 고통이 없는 경험이어야 한다"는 종전의 입장이 후퇴하고, 학습은 쓸 수도 있으며, 쓴 학습을 통하여 깊고, 복잡한 내용을 생각할 수 있는 인간을 길러낸다고 하는 새로운 입장이 들어서 있음을 보아야 할 것이다.

두말할 것 없이, 새 입장은 학생, 학부모, 교사 모두에게 더욱 진지한 교육에의 태도를 요구하고 있고,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교육에 바칠 것을 시사하고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다가오는 시대가 제시하는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들을 다음 세대가 무난하게 감당해낼 수 있도록 하려는 교육적 전략을 우리는 여기서 본다.

새로운 교과과정이 제시하는 교육에의 태도는 다음 세대를 캐나다사회의 고급인력으로 길러내는데 남다른 열의를 보이고 있는 한인학부모들의 이해관계와도 일치한다고 할 것이다. 왜냐하면 새 교과과정은 쉽고 즐거운 교과과목보다는 어렵고 힘드는 과목을 강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대학과정, 또는 그 이상의 과정을 쉽고 안전하게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향으로 짜여져 있기 때문이다.

이번 기회는 한인이민사회의 성원들이 다음 세대의 교육에 대하여 지금까지 지녀온 생각과 태도의 정당성 여부를 진지하게 검토해 보고 반성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고 본다. 학부모들은 자문해 보아야 할 것이다.

맹목적인 교육에의 열의만을 가져오지는 않았는가?

교육에의 열의가 마음만의 열의는 아니였던가?

충분히 생각하고 깊이 공부할 수 있는 시간과 환경을 자녀들에게 허용하였는가?

무리하게 자녀들을 집안일이나, 사업에 끌어넣는 일은 없었는가?

동시에 학생 자신들도 반성해 보아야 할 것이다. 주어진 기회를 언제나 최대한 이용하고 있는가?

기초적 실력이 모자라 대학공부를 계속하기가 어려운 예가 있다면, 그것을 반드시 부모의 책임만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새 교과과정을 맞이하여 학부모와 학생자신들이, 후자들이 캐나다사회에서 특별게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으로서 교육에 대하여 좀더 계획성 있는 접근을 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럴 수 있을때 우리는 내일의 한인사회를 좀더 낙관할 수 있다고 본다.

캐나다한국외환은행
●본점: 2 First Canadian Place #1140 364-2890
●지점: 627 Bloor St. W. 533-8593

SUNLIFE
백 용 빈

생명보험, 주택보험
R.R.S.P
사업보험, 상점보험
B) 497-3800
R) 284-9052

미도파 백화점
454 BLOOR ST.W
B) 536-1692
R) 245-[illegible]

강학수종합보험

Canada Life 15년근무
상점보험, 생명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R.R.S.P.은퇴연금
B) 868-0922
R) 622-5147

은하 보석
ROLEX
가장 믿고 살수있는
로렉스지정판매대리점
다이아몬드·순금 [illegible]
약혼·결혼예물 귀국선물
☎: 534-9977 7791 620A Bloor St. 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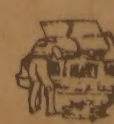
오늘의 예금금리(11/18부터)

기 간	한인신용조합		시중은행
	신용조합	오투기정기예금	
30일	10.5%		9.5%
90일	11%		10%
180일	11%	10.75%	10%
365일	11%	10.75%	10%

※$100,000이상은 특별금리로 우대함.
보험이 보장하는 한인신용조합 Tel : 533-9387~8

20년의 경력을 자랑하는
NORTH YORK AUTO BODY

*사고시 보험관계 일체처리
*24시간 토잉써비스(☎ : 745 : 7400)
*사고차량 완전수리, 페인팅 (OVEN BAKED FINISH)
*수리중 차량대여
*각종차량 일체취급
*사고시 전화문의 환영



215 TORYORK DR.
One Block North of Finch
West of Weston Rd.
☎ (B) 749-0555
(R) 881-4053
송 대 헌

<투자이민 안내>

□자 격 : 현재 대한민국에 거주하며 생산업(제조업)에 최소 2년이상 종사하고 있는 기업인.
□투자금액 : 대한민국 외국환관리법및 기타 이민법등에 의해 최대한의 자산.(동산및 부동산 포함)
□투자이민 장소 : 캐나다 퀘벡주.
□언 어 : 불어. 이민면담시(1983년11월 예정) 불어로 간단한 의사소통이 가능해야 함.
□투자이민 응모 희망기한 만료 : 1982년12월10일(금)까지.
□제출서류 : 희망자 성명및 사업체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등(공장 포함) 증빙서류.
□사전면담및 현지방문 : 1983년1월 초순.(단, 투자이민 가능성을 사전타진하는 것에 목적을 두어야 함)
※사전심사에 통과된 희망자는 1983년1월15일부터 정식수속 가능하며, 본사는 이민투자 수속에 필요한 여러가지 시장조사및 연구와 더불어 사업계획서 작성 제출을 도와줌.

(주)현영일 국제경영Consultant
(416)444-9341 (8:00 p.m.-10:00 p.m.)

University of Toronto
Robarts Library, rm 8049
East Asian Library
Tor On M5S 1A5

한국인 투자이민 모집

퀘백주대상… 5명 내외

퀘백주로 투자이민할 한국사람을 찾고 있다.

'일선회사인' 현영일국제경영콘설턴트(대표 공인회계사 현영일)는 현재 한국에 거주하며, 제조업에 최소 2년이상 종사하고 있는 기업인을 대상으로, 희망자는 12월10일(금)까지 응모해야 한다.

응모는 캐나다에 있는 친지가 대신할 수 있으며, 응모에 필요한 사항은 희망자의 성명, 사업체 이름, 주소, 전화번도등과 증빙서류이다.

투자금액은 대한민국 외국환관리법및 기타 이민법에 의한 최대한의 자산(동산및 부동산 포함)으로 대략 10만달러 이상이며, 이민희망자가 영주권을 받기전인 인터뷰때는 자산이 얼마라는 것을 보여주는 서류만 소지하면 된다.

3일 현씨가 밝힌바에 의하면, 지난 수년간 많은 투자이민을 성사시킨 경험을 토대로 사업계획서 작성등 수속에 필요한 여러가지를 대행할 것으로, 이번 경우 대규모가 아닌 약5명 정도를 직접 퀘백주정부의 이민관계자와 함께 1월초순경 서울로 가서 면담을 거쳐 선발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신청과정은,

(1)퀘백주 이민국에 신청서류를 현씨가 작성해 준 사업계획서와 함께 제출, 퀘백이민국으로 부터 서류심사통과 여부를 통지받는다.

(2)서류심사에 통과되면, 홍콩의 퀘백이민국으로 부터 한국의 본인에 인터뷰 날짜가 통보된다.

(3)인터뷰는 같은날 퀘백이민관에 이어, 연방이민관과도 갖게 된다. 단, 연방이민관은 영사업무만 취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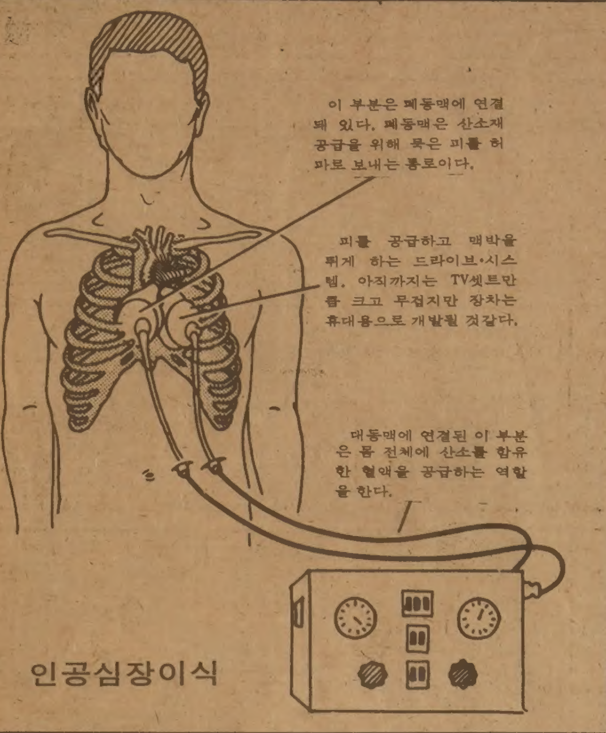
(4)퀘백이민관으로 부터 Certificate of Selection of Quebec라는 퀘백심사통과증을 받게 되면, 신체검사와 비자발부 과정에 들어간다.

현씨의 사전 선발에 통과된 희망자는 83년1월부터 정식수속에 들어가며, 빠르면 83년내, 늦으면 84년 봄경에는 캐나다에 올 수 있다.

퀘백이민관과 면담시 불어로 간단한 의사소통이 가능해야 하며, 46세미만, 대학졸업자, 비지네스맨으로서의 능력과 적성이 뛰어난 사람은 높은 점수를 얻을수 있다.

퀘백주 이민법은 100점 만점에 50점 이상인자에 영주권을 주며, 그 내역은 사업체 25, 대학졸업여부 10, 언어가 불어이면 15, 영어이면 2, 2년이상 비지네스 경험자 10, 비지네스 능력및 적성 25등으로 구분된다. 현씨에 따르면, 특히 이미 돈이 캐나다에 와 있는 사람의 경우는 더욱 유리하다고 말했다.

퀘백으로 투자이민한 사람은 이민후 최소3년이상 퀘백주에 거주해야 한다.



인공심장이식

한인청소년 전문절도단

LA지역 교포집만 골라 털어

(LA지사) LA근교 샌어난도밸리 일대를 원정다니며, 이 지역 교포들 집만을 골라 털어온 여고생과 미성년자가 낀 한인청소년 전문털이단이 30일 경찰에 체포됐다.

노스릿지에 있는 데본서경찰서는 이날 하오6시께 LAPD 동양인형사과 한국팀과 합동으로 노스릿지의 교포집을 털려던 최모군(20), 박모양(18)등 3명을 코리아타운 중심부인 8가와카타리나 코너의 한 모텔에서 검거, 이들을 절도혐의로 입건했다.

데본서경찰서 포드수사관에 따르면, 이들 3명은 이날 하오2시께 주택유리창을 부수고 안으로 침입하려다 마침 집에 있던 김모씨 부인이 경찰에 연락하자 그대로 도주했다고 한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동양인의 협조로 이들을 추적, 모텔에서 검거할 당시 다른 곳에서 훔친것으로 보이는 카메라, 비디오등 각종장물(수천달러 상당)을 압수했다.

또 이들이 타고 다니던 자동차도 도난차량임이 밝혀졌다.

포드수사관은 데본서경찰서에만 11월 한달간 30건의 주택도난 신고가 접수되었는데, 이중 25건이 한국인 피해자인 것으로 밝혀져, 이들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히고, 이들 이외도 2-3개 다른 전문털이 조직이 있는 것으로 보고, 집중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 정 정 —

지난 3일자 9면 하단 광고 「당선 인사」중 「진지하고도 정아한…」은 「…겸허한」, 「뜨거운 격려와…」는「격려를」, 「저희가 소심과…」는 「…소신과」로 바로 잡습니다.

이철수사면운동

동양계,주지사에청원

(LA지사) 이철수씨의 완전석방을 위한 사면청원운동이 한인 컴뮤니티를 비롯, 동양계 사회에서 전개되고 있다.

이철수후원회는 12월5일까지 마감으로 청원서를 작성해 캘리포니아주 에드먼드·브라운 지사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인공심장 정상가동

인류 의술의 신기원

(솔트레익·시티)치과의사인 바니·클락(61)씨에 이식한 인류최초의 인공심장이 성공적으로 작동하고있다.

인공심장이식수술을 실시한 미국 유타대의료센터의 대변인 피터슨박사는 3일 "기술적으로 수술은 완전 성공, 환자의 회복상태는 양호"하다고 말했다.

윌리엄·드브리스 박사가 주도한 수술팀은 인공심장이 공기를뿜었다 마셨다하며 작동하는 소리가 환자의 가슴팍에서 들리고 있으며, 환자는 7시간반의 수술끝에 특수장치가 된 방으로 옮겨졌다고 말했다.

인공심장은 가로 16인치, 세로 8인치, 높이 17인치인 드라이브·시스템과 호스로 연결되어 배터리의 힘에 의해 콤프레서로 작동된다.

의사들은 그러나 수술의 성과를 확신하기에는 시기상조로 아직 염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라고 조심스런 태도를 보였다.

인류가 달에 첫발을 내디딘만큼이나 획기적인 인공심장 이식수술이 끝나자 이에 따른 윤리적, 사회적 문제가 뒤따라 제기되고 있다.

의학과 생물학 연구로 발생하는 윤리적 문제를 연구하는 뉴욕 헤이스팅스·센터의 다니엘·캘러헌 박사는 인공심장 이식이 아직은 실험단계에 있어 의회가 곧 개입할 것같지는 않지만 만약 이식신청자가 많아지면 누가 우선권을 갖는가 하는 문제는 의회가 법으로 제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예견했다.

현재까지는 인공심장을 개발한 연구팀이 이식자를 선정하고 있다.

캘러헌박사는 또 인공심장 이식수술이 천문학적인 숫자로 늘어날 경우 그 경비는 국가의 의료예산의 한도를 넘어서게 될지도 모른다고 경고했다.

인공심장이식이 성공하기 까지는 25년간 연구가 계속돼온 것으로 알려졌다.

밍크
·밍크·폭스·세블·라쿤
록키모피
오더 메이드 전문공장
정승규
315 ADELAIDE STREET WEST
TORONTO. TEL 593-0189

菊과 사나이

치정과 恐怖의 추리소설 <123>

金聖鍾 작

출발 ④

뚱뚱한 대머리 사나이가 창을 찾아와…

휘사초이는 구룡(九龍)반도의남동쪽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홍콩섬과의 거리가 제일 가까운곳이다. 넓은 의미의 홍콩에서 제일 번화가로 알려져있는 그곳에는 페닌술러호텔, 하야트호텔등 일류호텔들이 들어서있고, 일류음식점, 술집, 상점, 나이트클럽, 바등이밤이면 환락의 불야성을 이룬다.

10분후 창은 차에서 내려 길을 건너갔다.

그의 병원은 힐튼 호텔5층에자리잡고 있었다. 호텔에 자리를 잡고 있어서 임대료가 엄청나게 비싸지만 그것을 커버할만큼 그는충분히 벌고있었다.

호텔안으로 들어가 그는 엘리베이터에 올랐다.

잠시후 5층에내려 카피트가깔린 복도를 걸어갔다.

복도의 한쪽 끝에 그의 치과가 하얀 모습으로 서있었다. 그는 9년째 개업하고 있었다. 그전에는다른 일로 세월을 보냈었다.

하얀문을 밀고 안으로들어갔다.

대기실에 사람들이 가득 앉아있었다. 안에서는 조수가 땀을 뻘뻘흘리며 환자와 씨름하고 있었다.

그는 조수와 간호원들의 목례에 일일이 답하면서 칸막이 된 원장실로 들어갔다. 저고리를 벗고 가운으로 갈아입으려는데 간호원이안으로 들어왔다.

「아까 찾아왔던 남자가 아직도 기다리고 있어요. 꼭 만나지 않으면 안된대요.」

「대기실에 있나?」

그는 가운의 단추를 채우면서물었다.

朴男 그림

「네, 인상이 좋지 않아요.」

「들어오라고 해.」

그는 소파에 앉아 담배에 불을 붙였다.

조금 있자 뚱뚱하게 생긴 대머리 사내 하나가 안으로들어왔다.

「실례합니다.」

「앉으시죠.」

중년의 사내는 안경을 밀어올리면서 얼굴에 흐르는 땀을닦았다.

「아까 전화걸으셨던분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사실은 저…」

간호원이 차를 가지고들어왔다.

사내는 간호원이 나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말을 이었다.

「…저는 다만 심부름을 왔을뿐입니다.」

「바쁘니까 용건만 간단히 말씀해보세요.」

그는 사무적으로 말했다.

사내는 더듬거리는 목소리로 이야기했다.

「어떤 조직에서 원장님께 모종의 특수한 일을 부탁해달라고해서 왔습니다.」

「조직이라니?」

「네, 어떤 큰 조직입니다. 어떤 조직인지는 저도 잘 모릅니다. 안다해도 말씀드릴 수는 없읍니다. 하여간 큰 조직이라는 것만 알아주십시오.」

「모종의 특수한 일이란뭐죠?」

「그것도 저는 잘 모릅니다.」

토론토 전교민을 위한
82년도 송년파티

최대의 인기가수

한국의 거성
민요가수 김세레나

단 하루의 공연을 위해
토론토 한인회 송년파티에 오다!

□ 최대의 규모
□ 최대의 호화판
● 좌석600석으로 제한되었음

일 시 : 1982년 12월10일(금)
오후 6 시~새벽 1 시
장 소 : 할리데이 인(다운타운)
89 Chestnut (☎ : 977-0707)
입장료 : $25(1 인당)

□ 매표장소 : 각 식품점및 식당
□ 권순근및 그의악단
□ 찬조출연 : 가수 김미리자
□ 푸짐한 경품(50여종)이 여러분의 행운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읍니다.

■10명이상 그룹에 한하여 좌석을 나누어 예약 가능함
연락처/ 토론토한인회 오간사

토론토한인회

THE KOREA TIMES is the only Daily(Except Sundays) serving the Korean-Canadians Fri. & Sat. issues printed together. Established 1974. Subscription $99. /yr. $9. /mo. 구독료(선금) 년$99. 월$9. ISSN 0712-1733 2nd Class Mail 5248

〈스포츠 단상〉

풋볼의 열광은 미국 NFL로

선수파업으로 상위16팀 프레이오프에 관중 안차면 자기지역의 TV중계금지

CFL의 우승전인 「그레이컵」을 둘러싼 소동은 토론토를 물리친 에드몬톤의 5연패로 끝이 났으나, 풋볼에대한 캐네디안들의 열기와 흥분은 이제 국경너머로 이어진다.

1월말까지 계속되는 미국 각도시팀의대항인 NFL (National Football League)경기는 매주 일요일에 벌이져므로 미국이나 캐나다에서는 집을 사기위해 Open House를 찾아다니는 사람이 적어지고 심지어는 교회출석율까지 떨어질 정도로 열광이 대단하다.

그러나 금년도 NFL은 선수들의 파업으로 57일이나 공백을 가짐으로서 인기가 많이 떨어져 종전처럼 스타디엄을 메울수가 없다고 울상이다. 토론토의 가장 인근도시인 바팔로·빌스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관중이 없어지면 인근지역에서는 TV중계를 볼수 없게된다. 왜냐하면 프로·풋볼에서는 전게임을 TV중계되고 있으나 만약 자기 지역스타디엄의 예매표가 잘 안 팔릴때는 그 지역에는 중계를 안하고 먼지역으로만 중계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토론토시민들은 아고스의 홈경기는 거의 보지못한채(즉 익시비션스타디엄이 만원이 안되었음) 서부지역팀들의 경기나 아고스의 어웨이 게임만 보았다.

바팔로·빌스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4게임을 벌여 3승1패를 기록했으나 전부 홈게임이어서 버팔로지역에서는 TV중계를 못했고 5일의 그린베이·패커스와의 어웨이게임만 볼 수 있었다.

2개월에 걸친 파업후 NFL은 프레이오프 진행방식을 아주 바꾸어 각 컨퍼런스(Conference) 상위 8팀씩을 추려서 내년 1월1일부터 31일까지 슈퍼볼때까지 진행한다. 83년도 17회 슈퍼볼은 캘리포니아 파세도나·스타디엄에서 열린다.

NFL의 28개팀은 아메리칸·컨퍼런스와 내셔날·컨퍼런스로 14팀씩 나누어져 있으며 각 컨퍼런스는 동부, 중앙 서부등 3개조로 다시 나누어지나 금년에는 각조는 무시하고 컨퍼런스 성적만 본다.

버팔로는 3승1패로 아메리칸·컨퍼런스에서 상위 6팀과 동률을 기록하고 있으나 골 득실차에서 밀려 6위에 머물렀다. 즉 8위권내에 들려면 승리도 중요하나 점수를 많이 따야한다.

NFL 에서는 캐나다 에드몬론처럼 5연패를 기록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L.A.레이더스(81년 우승 팀으로 작년 프레이오프 탈락)처럼 82년 슈퍼볼 우승팀인 샌프란시스코·49'ers도 1승3패로 9위로 물러나 있다. 그 이유는 캐나다도 선수 스카웃에서 하위팀에 유리한 조건을 주나 인근 미국에 방대한 선수시장이 있으므로 돈이 많은 팀이 유리하다. 반면 NFL은 신·구교체가 비교적 빠르면서 종합성적을 보고 최하위에 가장 유리한 스카웃 우선권을 주므로 전년도 우승팀은 항상 불리한 조건으로 스카웃을 한다.

또 프로경기에서도 자기팀이 전년도 우승팀을 격파해야 관중이 모이므로 우승팀은 항상 각팀의 공격대상이 된다. 에드몬톤의 경우도 각팀의 공격대상은 되나 CFL(캐나다풋볼리그)에는 팀수가 절대적으로 적으므로(9개) 그만큼 공격도 덜 받는다.

버팔로·빌스의 경우 항상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으나 해마다 프레이오프에 진출하면 맥없이 주저앉는다. 쿼터백 죠·훠가슨—러닝백 조·크립스 또는 와이드·리시버 제리·버틀러로 이어지는 공격진은 NFL 최고로 손꼽히고 있으나 작년도 초반 주장 데켄지의 부상으로 허술해진 수비진의 공백은 아직도 못 메꾸고 있다.

TV시청자를 위해 몇개 풋볼의 규칙을 간추려 보면.

◉Touch down—풋볼의 꽃이다. 볼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든지 상대진영에 들어가기만 하면 된다. 물론 중간에 공격팀의 파울이 있었으면 무효가 된다. 한번의 터치다운으로 6점을 얻고, 거의 98% 성공률에 가까운 1점짜리 20야드 필드골 찬스를 보너스로 얻게 된다.

◉Field Goal—공격팀이 주어진 기회동안 터치다운이 여의치 않으면 그 자리에서 Field Goal킥을 시도한다. 이볼이 H자형 골대를 넘으면 3점을 얻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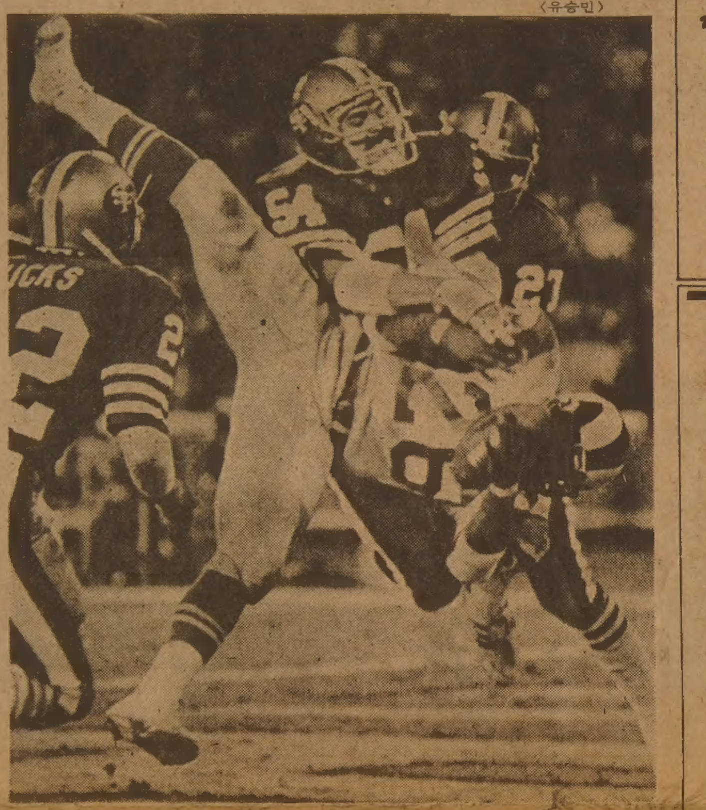
◉First down—4번의(CFL은 3번)의 공격기회중 첫번째 기회이다. 공격팀이 10야드 이상을 전진했거나 턴 오버등으로 갖게되는 첫번째 공격기회이다. 상대방진영 10야드 미만의 전방에서 이 기회를 가지면 아나운서는 "First down to go to goal" 하고 외쳐댄다. 즉 4번 공격에 골을 터치다운 못 시키면 공격기회를 잃게된다.

◉Out of Shotgun—공격팀의 공격방법중 쿼터백의 포지션을 말한다. 1번 2번의 공격을 시도했으나 실패또는 반칙으로 공격거리가 멀어졌을때, 쿼터백은 스크럼을 짜고있는 자기 수비진에서 5야드정도 뒤로 물러서 공을 받은후 던지기로서 전진을 시도한다. 이때는 항상 쿼터백뒤에 받치고있던 런닝백들이 빠지고 대신에 Wide Receiver가 추가로 기용된다.

◉파울—각종 반칙이 엄격하게 적용된다. 과격한 경기이므로 심판의 판정권이 절대적이다. 다른 경기와 비슷하게 Holdign, Face Mask, Upside등이 있고, 경우에 따라 심판이 반칙팀을 5야드, 10야드, 20야드까지 뒤로 물러나게 한다. 반칙을 당한팀이 원할때는 벌칙을 취소할수도 있다.

◉오렌지·보울, 로즈·보울—우리 귀에 많이 익은 소리로 무슨 대회결승전같이 연상되나 실은 마이애미에서 하는 모든 풋볼경기를 오렌지·보울대회라 하며 캘리포니아 파사데나서 열리는 모든 경기는 로즈보울이라 한다. 즉 이번 1월31일의 17회 슈퍼보울은 로즈볼게임이라고 불리운다.

〈유승민〉



◆L.A. 램스의 웬델·테일러 1야드 터치다운은 성공했으나 49'ers들에게 둘러싸여 곤욕을 치루고 있다. 전년도 우승팀 샌프란시스코 49'ers는 이 게임에서 램스를 30—24로 누르고 금년도 첫 승리를 기록했다.

새로개업한
서울식품
좋은품질로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봉사 합니다
김장김치 주문환영
해밀톤지점 ☎ : 1-385-1485
서부지점 ☎ : 243-9544

적은 비용으로 알찬효과를 보는 한국안내광고란

한국비데오센타
- 각종 비데오테잎 대여전문
- 품질보장 · 신용본위
- 비데오 기계 · TV판매
☎ 532-0210 손 병 헌

▷금주의 행사▷ — 12월6일(월)~12일(일)

◆10일(금)하오6시30분 토론토한인 YMCA 성탄파티
곳 : West End YMCA(931 College St. Tor)
연락처 : 536-1166(Mr. Kim)

◆10일(금)하오6시 토론토한인회 송년파티
곳 : Holiday Inn(토론토시청 뒤)
참가비 : $25(디너 포함)
※유명가수 김세레나 출연
연락처 : 755-9288 (한인회)

◆10일(금)하오8시 경동동창 망년파티
곳 : 한인회관(20 Mobile Dr.Tor)
연락처 : 822-5093(강 대영)

◆10일(금)하오7시 중앙고교 망년회
곳 : 크링톤하우스(693 Bloor St. W.Tor)
연락처 : 534-3353(윤 택순)

◆11일(토)하오7시~1시 동우연말잔치
곳 : The Skyline Hotel (655 Dixon Rd. at HWY 27)
※밴드·가수·경품·행운권 준비
연락처 : 745-5301(박 진근)

◆11일(토)하오7시 중동동문 연말파티
곳 : 마초레스토랑
연락처 : 742-5672(홍 사겸)

◆11일(토) 하오6시 대한교회 창립8돌 예배
곳 : 동교회(3819 Bloor St.W.Tor)
연락처 : 621-6340

◆11일(토) 하오6시 이화여고 성탄·망년파티
곳 : Triumph Sheraton(HWY 401×Keel)
연락처 : 895-7594(Mrs. 김)

◆11일(토)하오8시 해밀톤한인회총회및 송년파티
곳 : Cyrill Chuch Hall (204 Park St.North Hamilton)
※권순근악단 출연

◆11일(토)하오6시 숙명여고동창 망년회
곳 : 김봉진 회장댁 (4172 Trapper Cres. Missi)
연락처 : 820-0483(김 봉진)

◆12일(일) 하오6시 무역인협회 망년회
곳: The Old Mill (21 Old Mill Rd.)
연락처:535-3305, 2091

◆12일(일) 하오7시 (토론토한인교역자회 주최) 성탄연합 찬양예배
곳: 제일장로교회 (68 Collinson Blvd. Downsview)

◆12일(일) 낮12시30분 중앙한인연합교회 담임목사(김택규) 부임환영예배
곳: 동교회(353 Sherbourne St. Tor.)

고려·연세의 밤 송년파티

한국 사학(私学)의 양대 명문 연세대학동창회(회장 박남희)·고려대학동창회(회장 서춘경)의 합동 연말잔치 「고려·연세의 밤」이 올해는 연대동문 주관으로 12월17일(금) 하오7시 토론토 번화가의 중국음식점 서호(130 Dundas St. W.)에서 열린다.

이팔민씨 사회로 다양한 스케쥴이 펼쳐질 이날의 잔치는 하오7시~8시 리셉션, 8시~9시 만찬, 9시~1시 여흥·경품추첨·댄스등.

회비는 부부 $45, 개인 $25이다.

연락처: 고대 661-1819(정필주)·연대 298-4480(조남수)

대각사
大覺寺
자비의 전화 개설 안내
『따르릉~
자비의 전화입니다』
중생의 괴로움을 함께 아파하여 그 해결책을 위해 상담에 응해 드리는 전화가 토론토에 자리했음을 알려 드리오며 교민 여러분의 많은 애용을 바랍니다.
가내의 만복을 비오며 소원성취 이루소서…
혜관스님합장
☎ : 463~8998
(매일아침 8시부터 10시사이)
11 DAWSON AVE. TOR.

평신도를 위한
신앙강좌
1982년도 저물어가는 이 때에 지난해에 우리의 신앙생활을 반성하며, 다가오는 새해의 새로운 각오를 다짐하기 위하여 이민교회 목회의 성공자로 널리 알려진 안중식 목사님을 모시고 교회봉사를 위한 신앙세미나를 개최코저 하오니 다망하신 가운데서라도 부디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강사소개(안중식 목사) 한국 장신 졸업
연세대학 신과 졸업
뉴욕대학교 심리학 석사
뉴욕 부르크린한인장로교회
일 시 : 1982년 12월11일(토) 오후 1 시30분
장 소 : 토론토 새한장로교회
105 Wilson Ave. W (영스트릿에서 한부럭 서쪽)
연락처 : 총무 김희학 장로(429-5315)
협동총무 이준희 장로(622-7539)
주 최 : 토론토 장로연합회
토론토 장로연합회 회장 구연원

주문에 신속배달
●횟감 : *민어 *튜나
●신선한 생선 : *아지
*가재미
*동태
*새우
*물오징어
항상 준비되어 있읍니다.
(파티용 TRAY는 3일전 예약바람)
3413 FIELD GATE DR. MISSI.
(블로아와 딕시에서 2블락 동쪽에 위치)
624-3092 임 호 빈
FOREST GLEN SEAFOOD

한국일보

그리의理想三遷全韓新聞

땅값 올해 5.4% 올랐다

서울江東 25%로 최고

내년上半期 上昇幅 더 높을듯

전국의 땅값이 금년중 평균5·4% 올랐다。

78년 부동산 투기억제조치이 지난래 가장낮은것이나 도매물가는 이보다 낮은 2·0%로 한정돼 지난78년이후 4년만에 땅값상승률이 도매물가상승률을 3·4%나 앞지른것으로 나타났다。

1일건설부가 발표한 (81년10월1일~82년10월1일) 전국地價변동률조사에의하면 올상반기 (81년10월1일~82년4월1일)에는 1·8%가 오른데이어 6월이후 부동산경기회복세에따라 하반기(82년4월1일~10월1일) 에 3·5%가 올랐다。

지가변동률조사는 매년두차례 4월1일과 10월1일을 기준일로하여 실시하는 것인데 올해 12월이후의 땅값오름세를 고려하면 내년 상반기 상승폭은 올해보다 높을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동안 전국 땅값상승률은 ▲78년 49%를 고비로▲79년 16·6%▲80년11·7%▲81년 7·5%▲금년 5·4%등 계속 안정추세를 보여 왔으나 최근 일부 부동산투기현상을 계기로 다시 부분적인 오름세를 보이고 있을 뿐아니라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조짐까지 보였었다。

지난해 10월부터 1년동안 땅값이 평균20%이상 오른지역은 전국의 조사대상 2백12개지역가운데 서울江東區의25·4%,江南區 21·7% 및 전남 光陽郡의 20·8%등 3개지역이며 10%이상 오른곳은 경기光明市의 17·5%를 비롯, 12개지역이나된다。

이밖에 전국 평균상승률인 5·4%이상 오른지역이居昌郡등 70개지역이며 1%~5% 오른곳은 1백개지역이다。

반면 보합이나 하락세를 보인곳은 醴泉·奉化郡과 安城、牙山、義城郡등 3개지역뿐이다。

가장 땅값이 많이 오른 서울江東區와 江南區는 하반기이후 開浦지역에서 일어난 아파트 투기붐과 올림픽경기장주변개발에따른투자붐때문이며 땅값이 오히려 떨어진 安城、牙山지역은 당초 제2제철 후보지계획이 취소되면서 그전에 이미 올랐던 땅값이 상반기이후 내렸던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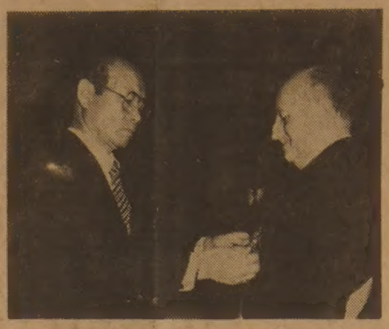
지목별 전국평균 상승률은 밭이 4·6%, 논이5·8%, 대지가5·6%, 임야는 4·7%씩 각각상승했다。

또 지목별로 보아 가장 많이 오른땅은 서울江南區의밭(田) 31·6%, 논(畓) 31·7%이며 대지는 서울江東區27·4%, 임야는 88고속도로 개발에따른 붐을 탄 南原지역이 21·4%로 가장크게 올랐다。

◇82년 全國땅값변동률

<단위·%>

	평균			田	畓	垈	林野
	상반기	하반기	연간	연간	연간	연간	연간
전국	1·8	3·5	5·4	4·6	5·8	5·6	4·7
서울	1·3	7·3	8·7	13·2	12·7	8·6	5·9
부산	1·0	3·3	4·3	5·5	3·6	4·4	2·9
대구	1·2	0·1	1·3	4·1	2·2	[illegible]	4·5
인천	3·3	3·6	7·0	8·4	7·2	[illegible]	6·6
경기	2·9	5·6	8·7	6·7	7·2	[illegible]	8·4
강원	1·7	2·4	4·1	3·2	3·5	[illegible]	4·0
충북	2·9	3·5	6·5	6·2	6·2	[illegible]	6·0
충남	1·9	2·7	4·7	4·6	4·4	5·0	3·7
전북	2·0	2·0	4·0	2·8	4·1	4·4	4·1
전남	1·9	4·5	6·5	6·1	7·1	6·5	5·7
경북	1·4	1·5	2·9	2·2	3·9	2·5	2·6
경남	0·9	3·8	4·7	3·9	7·9	3·7	3·9
제주	0·6	2·0	2·6	1·6	1·6	3·9	4·3



離任하는 墺大使에 全대통령 勳章수여

全斗煥대통령은 1일 하오 청와대에서 클레멘스·바이크스·안데르·글론 駐韓오스트리아대사 (일본常駐)의 離任예방을 받고 修交훈장 興仁章을 주었다。

이자리에는 李範錫외무、朴璟燦총무처장관이 배석했다。

테니스·射擊 축전

全斗煥대통령은 1일 아시아경기대회 테니스女子복식과 혼합복식, 사격스탠더드권총개인전에서 金메달을 차지한 한국선수들에게 축전을 보내 치하했다。

육상 張在根 金메달

아시안게임 2百m서 20秒89…大會新

사격 朴鍾吉 金추가… 金메달 모두 18개

【뉴델리=신문공동취재단】 한국 육상단거리의 호프 張在根 (20·성균관대3년) 이 아시안게임사상 처음으로 단거리종목 金메달을 차지했다。

張在根은 1일열린 제9회 아시안게임 육상2백m 결승에서 20초89의 대회신기록 (종전21초09)으로 귀중한 金메달을추가, 한국선수단에 가장 값진선물을안겨줬다。張은 이번대회 1백m에서는銀메달을 차지했었다。

30일 사격스탠더드권총 개인전서 朴鍾吉이 5백65점으로 金메달을 차지했다。

한국은 남자테니스복식 金메달을 포함, 이날현재 18개의 金메달을 확보, 종합3위가 확실해졌다。

◇亞洲경기 육상단거리의 첫金메달 快擧

아시안게임사상 처음으로 단거리종목 금메달을 차지한 張在根.

亂動 北韓축구팀 懲戒

AFC 국제大會에 2년간 出戰금지

【뉴델리1日聯合=特】 아시아축구연맹 (AFC) 징계위원회는 쿠웨이트와의 준결승전서 주심의판정에 불만을품고 태국주심 G·비지트씨를 집단폭행했던 북한팀에 대해 앞으로 2년간 국제대회참가를 금지시키기로 결의, AFC집행위원회에 통보했다。

징계위원회는 또 북한측의 항의에도 불구, 쿠웨이트ー북한의 경기결과를 그대로 인정할것도 건의했다。

한편 AFC집행위원회도 징계위의 결정을 즉각 인정했다고 인도축구협회사무총장인 고즈씨가 밝혔다。

政治議案처리 논의

오늘 總務회담

民正、民韓、국민등 3黨총무들은 2일상오 회담을갖고 야당측이 제출한 이른바 정치議案의 처리문제와 막바지국회운영문제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치議案의 경우 民正黨측은 이번 국회會期안에 처리하지않고 계류시킨다는 방침을 세우고있는 반면, 야당측은 여당측과 정치적타협을통해 어떤보장이라도 얻어야한다는 전략을세우고있어 정치議案은 종반국회의 焦點이될것같다。

또 資源管理法案의경우 民正黨은 이번회기내에 소관常委에 상정만이라도 할뜻을비치고있는데 대해 民韓黨측은 이법안의 철회를 계속 주장하고있어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民正黨의 李鍾贊총무는 1일 資源관리법안문제와관련, 『이번 국회會期안에 통과는 시키지 않더라도 국방위에상정만이라도 하는게 바람직하다』면서 일부에서의 소관常委시비에 대해『그 법안이 갖는 전문성을 고려, 국방위가 가장 적합하다』고 말했다。

한편 民韓黨은 1일 열린 院內對策회의에서 국회법개정안、정치 被규제자 解禁건의안, 언론기본법개정안、地自制실시등 政治議案에대해 최소한 이번회기내에 與野간의 「정치적妥結」을 추진하며 자원관리법안은 정부가 이를 철회토록한다는 방침을 확인했다。

구독신청 배달사고 633-2361

民正地區 개편대회 年初부터 개최키로

民正黨은 내년 상반기중에 全黨大會를 갖기위해 내년초부터 전국地區黨 개편대회와 市道지부정기대회를 열 예정이다。

社會漫評

건너야만 되는 다리…

太平洋그룹 10개社 5千萬원

独立紀念館건립 誠金

우리의 작은精誠: 큰뜻 이루게

<1일접수>

電話접수 722-4171

▲太平洋그룹 10個社 임직원一同=5천만원 【太平洋化學工業(株)=2천5백만원、太平洋商事(株)=7백70만2백96원、太平洋開發(株)=6백5만3천4백69원、太平洋패션(株)=2백36만2천2백10원、太平洋金屬(株)=1백36만5천9백20원、統源産業(株)=2백24만5천9백70원、太平洋粧業(株)=2백51만9천5백40원、太平洋物産(株)=1백77만8천6백67원、太平洋通商(株)外=97만3천9백28원】

正友開發 국내외技能職사원 2백20만원

大林水産 金命年사장外 1백72만원

(株)물개표 李商熙대표外 1백13만원

▲正友開發(株) 국내외 현장 기능직사원一同=37만9천4백10원、美貨1천9백13달러、사우디貨1천9백96리얄【사우디支社=43달러、205공구=1백11달러、9607공구=2백78달러、305공구=6백62달러、302공구=사우디貨1천9백96리얄、카탈16공구=3백58달러、예멘3공구=4백61달러、종로빌딩현장=7만2천원、양산도로포장공사현장=4만3천원、농수산물도매시장 신축공사 현장=11만7천7백원、고씨동굴 포장공사현장=2만8천원、여수LPG현장=6만8천5백원、마포재개발현장=5만2백10원】

▲大林水産(株) 대표이사 사장 金命年씨외 임직원一同=1백72만9천4백85원

▲(株)물개표 대표이사 李商熙씨외 임직원一同=1백13만원

在수단 한인회 1천7백弗

歌手 南珍씨 1백만원

在和蘭 한인회 5천8백길더

▲歌手 南珍씨=1백만원 【日刊스포츠접수】

▲在수단한인회=美貨1천7백30달러

▲在수단한국부인회=美貨6백달러

▲在화란한인회(회장李基恒)一同=화란貨5천8백길더

▲在버마주재상사一同(코트라、삼성종합상사、현대건설、현대종합상사、국제종합상사)=美貨6천달러

▲(株)聯合유리代表理事李洪根씨외임직원一同=54만3천원

▲在사우디 다하란석유광물대학교 태권도사범 이태성씨=사우디貨1천리얄

▲在시드니한인중앙장로교회 (목사홍관표)=호주貨3백10달러57센트

在버마주재상사 一同 1천弗

在수단 한국부인회 6백弗

(株)聯合유리 54만원

▲在시드니서울대학교동창회호주지부 (지부장이응표)=호주貨2백달러

▲명신인쇄사일동=20만원

▲한양라이온스클럽이효숙회장외회원一同=10만원

▲在美뉴욕 Tanoma Coal Co.=美貨2백81달러 【뉴욕지사접수】

▲在美뉴욕교포공화회=美貨1백달러

▲在美뉴욕교포의사김자구씨=美貨50달러

▲在美뉴욕교포이영환씨=美貨50달러

▲在바레인호구코치당9명=美貨1백19달러

▲在덴마크교민회인재율랜드한인회(12가구)=덴마크貨1천크로나

▲在샌프란시스코교포손장락씨=美貨1백달러

▲末金會회장李起申씨외회원一同=4만1천2백원

▲종로구혜화동9통6반주민一同=3만원

무인신문판매대 블루어에 설치

○음식점 한국관앞

○40¢넣으면 신문통 문이 열립니다.

○식품점서와 같이 당일발행된 신문을 사실수 있음.

토론토 한국일보

地平線

『黑色은 아름다운 것이다』고 미국 黑人선수들은 외쳤다。60년대 美黑人들의 人權伸長운동이 美大陸에 팽배하고있었을때, 마침 멕시코 올림픽대회서 많은 金메달을 딴 美黑人육상선수들은 하나같이『Black is beautiful』이란 구호를 높이 부르짖었다。그것은 스포츠를 바탕에 깐 정치구호였다。그구호는 黑人들의 民權行進과 합세되어 그들의 權利伸長에 크게 기여한것은 말할것도 없다。▼승리의 월계관을 쓴 黑人선수들의 땀에젖인 검은얼굴빛깔만이 아름답게 보이던 것은 아니다。스포츠 그자체가 아름다운 것이다。스포츠란 그런 美의제전이 아닌가。힘과 기량에 경기운행 규율이 뒤따를때 어떤 경기든 아름다움을 풍긴다。수년전 地平子는 영국을 방문해서 윔블던테니스 女子준결승 시합을 관람한적이 있다。푸른잔디밭, 하얀유니폼, 날씬한脚線美가 잘 조화된가운데 펼쳐진 묘기와 젊음의 약동에서 女人의 새로운 아름다움마저 발견하는듯 했다。경기를 보는 觀衆들의 질서있는 매너가 그 시합을 더 고상하게 만들었다。▼현대사회의 총아인 스포츠는 정치와도 좋든 궂든 緣이 연결된다。경제大國 일본과 人口大國 中共이 뉴델리에서 진행중인 아시안게임의 첫째, 둘째를겨루고있는것은 國力과 결코 무관한 것은 아닌듯 하다。국제경기에서 국가를대표한 선수들은 비단 자기나라의 國力만을 반영하는것이 아니다。그國民性, 文化水準등 한나라의 전반적 이미지를 은연중 나타내게 된다。세계 어느나라에서나 스포츠가 TV의 인기프로로 되어있는 마당에서 스포츠경기가 국가이미지에 주는영향은 더할나위없이 크다。▼한데 30일있었던 아시안게임 축구경기에서 北韓팀이 난동을부렸다는 보도는 듣기에 유감스런 일이다。심판에대한 불만으로 北韓선수들뿐아니라 觀戰하던 임원, 외교관까지 합세하여 主審에게 집단폭행을했다는 것이다。만일 主審이 공평치 못한 판정을 내렸다면 적절한 절차에따라 항의를 하거나、그래도 불만인경우에는 극단적인방법으로 경기를 포기할수는 있을법 하다。경기를 속행한후 졌다고해서 集團亂動을 부린것은 국제경기에서 도시 있을수 없는 心性발로다。▼그렇지않아도근래 유엔주재 북한대표단원의 비행행의와 그에대한 조사불응등 國際心性上 좀 딱해보이는면이 없지 않던중이다。같은 민족의 처지에서 속히 고쳐졌으면하는 안타까움이 앞선다。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716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 (416) 532-2727

경영회계사
이 영 철
344 Bloor St. W
Suite 304
921-1294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적 금
교육·은퇴
부동산

김 종 조
535-0028
535-7200

YOUNG SOOK'S
보석상

▲각종보석
▲다이아몬드 품질보장
▲최저가격
▲뉴디자인
▲보석개조 교환매매
▲보증서
215 YONGE ST.
368-7961(B)
690-5217(R)

CENTRAL CANADA COLLEGE

특수영어프로그램

고등학교 11학년~13학년을 위한 영어교육을 위한 신청
학기는 매년 1월, 6월, 8월에 시작함.
컴퓨터·싸이언스및 제2외국어로서 영어교육을 위한 훌륭한 선생 보유
학생들의 대학교입학을 위한 보조 역할
외국학생들의 비자신청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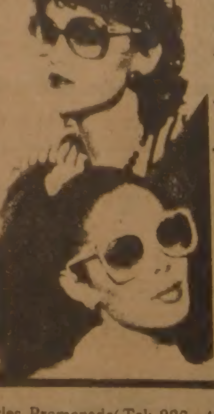
자세한 사항은
444-1136
MR. WAN 또는 월리암

사무실시간(월~금)오전9시~오후5시
60 Park Lane Circle (베이뷰×로렌스)
☎ : 444-1136

S.T.S Motors
자랑스런 차
각종 VOLVO
(스웨덴)

■우리는 VOLVO 차를 취급하는 가장 뛰어난 딜러입니다.
■자신을 갖고 여러분께 추천합니다.
■각종 차, 웨건등
판매·LEASING·써비스·부속파트·타이어·페인트
S.T.S.MOTORS
전화 : 751-7664 로렌스·EAST OF WARDEN
2116 LAWRENCE AVE. E.

Chameleon Sunglass
Boutique
〈각종 고급 썬그라스 대매출〉
각종 유명 메이커제품을 구비하고 할인교포 여러분께 선보입니다.



·Paola Belle
·Zeiss
·Porsche
·Ted Lapidus
·Yves St. Laurent
·Christopher Magnus
·Play boy
검안 해 줍니다.
Prescription Also Available
15% Discount Korean Only
·Christian Dior
·Ferrari
·Nina Ricci
·Roger Gallet
·Emmanuelle Khahn
·Pierre Cardin
광고쿠폰을 가져오시면 15% 할인합니다.
Bring This Ad for 15% Discount Korean Only
St. Charles Promenade(Tel: 920-4062)
(One Block South of Bloor St.)
730 Yonge St.(블루아×영 남쪽)

중앙고등학교
망년 파티
저물어 가는 한해를 되새기며, 아래와 같이 대화의 시간을 마련해 봅니다. 바쁘신 중에도 부부동반하시어 즐거운 한때를 갖이시길 바랍니다.
ㅁ일 시 : 1982년12월10일(금) 오후7시
ㅁ장 소 : 크링톤하우스 (CLINTON HOUSE) 693 BLOOR ST. W.
※ 푸짐한 상품이 준비되어 있으며 경품 추첨도 있읍니다.
연락처 : 회 장 윤택순 ☎ 534-8353
부회장 김영철 ☎ 652-0370
총 무 최남원 ☎ 921-2304
중앙고등학교
회장 윤 택순

民正서 앞장서고…民韓서 밀고…
稅金늘린「診記錄 國會」

千態萬象의 豫算案심의 政治部기자 좌담

實名制파동은 큰 經驗
「聖域방위비」삭감…突風

—지난9월20일부터 시작된 정기국회도 이제 종착역에 가까와왔군요. 2일 본회의에서 예산안이 통과되면서 실상 예산국회는 끝나고 나머지 몇몇법안들을 심의하느라 15일까지 잔務처리를하는 일정만 남았읍니다.

—이번 국회는 전반적으로 보아 어때요? 급제점이라고 할수 있을까요.

—11代의 첫정기국회인 작년과는 다르고 또 前半2년을 마무리한다는점에서도 중요한 의의가 있는 국회였어요.

—그래서 그런지 與野가모두 급제점을 받으려고 그나름대로 노력하는것같았어요.

—이번 實名制파동으로 몇차례 고비를넘기는 했지만 이번국회가 여러가지면에서 進一步한것만은 틀림 없을것 같군요.

—특히 豫決委에서 83년도 예산안의 삭감과정을 지켜본 사람들은 한층 원숙해졌다고 느끼고 있어요.

—정기국회 시작은 어수선했으나 막바지에 열매를 잘 맺은 셈이지요.

—이번 정기국회의 하이라이트는 예산안의 만장일치통과였어요. 그외에 다른 기록도 많았지만…。

—예산안의 만장일치통과는과거 일방통과나 票對決의방식을 지양, 완전한 與野의 합의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기록될만 하지요.

—1천3억원이란 예산삭감액도 공전의 액수였고 「聖域」으로 여겨졌던 방위비를 3백23억원이나 깎아내린것도 보기드문 기록이지요.

—예산안이 1천억정도 삭감될수있다는 얘기는 벌써부터 나돌았지만 방위비 삭감은 의원들도, 기자들도 깜짝 놀랐어요. 물론 GNP推計値가 過多책정되었다는前提가 있지만…。

—야당의원들도 『우린도놀랐다』는 소리를 連發하더군요.

—과거에는 정부가 국회에서 삭감될것에 대비, 對野흥정용으로 예산을 숨겨놓거나 미리 방만한 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했는데 이번 예산안은 赤字재정답게 정말로 손댈곳이 별로 없었다는게 야당의 소리였어요.

—民韓黨에서는 처음 예산안을 살펴본 후 『3백억원이라도 깎으면 잘 깎는 것』이라고 말했지요.

—그런데도 여당은 「예산안의 원안통과」를, 야당은무조건 삭감을 주장하지 않고 서로 합리적 삭감액을 제시, 끝까지 대화로 타협점을 찾았어요.

—특히 野黨은 과거 허황한 삭감목표대신 여당이 거부할수없는 적정규모의 삭감폭을 내놓았고 이것이 여당의 意中과 맞아 떨어진것이지요.

—民正黨은 民韓·국민등野黨이 처음부터 납득할수없는 엄청난 삭감액을 내놓았더라면 차라리 일하기가 쉬웠을 것이라고 실토하더군요.

—세입에서 1천30억원을 늘리고 세출에서 1천3억원을 삭감하여 國債발행규모를 줄였지만 결과적으로 국민의 稅부담은 많이 늘어났지요.

—與野가 國債발행 축소에 열을 올리다보니 그런 결과를 가져온 셈이지요.

—國債발행을 줄이면 그만큼 稅金을더 걷어야하고 늘리면 당장의 稅金은 줄되 몇년후 더많은 稅金을 내야하고…。 그래서 정부와 여당이 「朝三暮四」式으로 예산을 논하고 있다는 얘기도 있었지요.

—금년도 정부가 발행키되어있는 3천5백억원의 國債판매실적이 극히 미미했기때문에 내년도 國債소화에 자신이 없는 정부·여당이 國債발행을 줄이고 稅收增의 방법을 택했다는 해석도 있읍니다.

—1천30억원의 稅收增을 가져오게한 재무위 稅法小委의 결정이 이같은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지요.

—稅法小委가 史上유례없이 세금을 더걷도록 만든것은 예결위가 방위비를 포함하여 1천3억원이란 엄청난 예산을 삭감토록 한것과 마찬가지로 이번 국회의 珍記錄으로 등장했어요.

—정부가 제출한 稅法案이 實名制실시를 전제로 세금을 대폭 내린것이었기때문에 實名制가 연기된이상 稅率의上向조정은 불가피했지요.

—그래서 재무위는 案件이나 다름없는 정부안을놓고 그야말로 「구름잡기式」 심사를했지요.

—결과적으로 세금을 올리는데 民正黨이 앞장을 서고 야당이 밀어준 형세였는데정부측은 이에 달갑지않은 태도를 계속보이는등 奇異한현상이었읍니다.

—民正黨은 법인세율의 인상과 부가세법의 계류를지시했을뿐 나머지는 稅法小委위원들에게 일임했다고 權翊鉉사무총장은 말하더군요.

—일임했다고는 하지만 稅法小委위원들이 모든 문제를 당지자와의논하여 결정했어요. 또 民韓黨도 책임을지지 않으려고 서로결정을 미루다보니 稅法小委는 그야말로어수선했지요.

—이번 稅法심사에있어 총무는 小委로, 小委는 총무에게 결정권을넘기는 전형적 책임전가를 與野모두가 전개했는데그야말로 별을없는 사소한것까지 小委위원들이 총무에게 가져가자 朴俊圭재무위원장은 『이런것까지 총무에게 가지고가느냐. 財務委는 바지저고리냐』고 화를내기도했어요.

—마지막 爭點이 되었던 소득세법에있어 民韓黨이 합의를 해주고도 뒤늦게 失手를 발견, 합의를 번복하자 여정이난 民韓黨의 李載根간사는 『나혼자라도 합의해주겠다』고말해 林鍾基총무와 言爭을 벌이기도했어요.

—이實名制와 資源관리법안이 느닷없이 예결위로 몰려와 예결위가 한때 곤욕을 치렀지요.

—金竣成부총리는 예결위에서 『정부原案대로 심의해달라』고 公式답변을 하고있는 마당에 金相浹국무총리가 忠州에서 實名制연기발언을 하여 예산심의에 차질을 가져오기도 했지요.

—豫決委에서는 4번의 위기가 있었어요. 처음은 예결위회의장 改造에대한 야당의 불만으로 잠시 반발했고 다음은 實名制로 재무위가공전되고있는데 예결위도 응할수없다고 야당이 강경태도를 보였지요. 다음은 實名制에 대한 金총리의 답변을 뒤엎는 金총리의 忠州발언 그리고 느닷없이튀어나온 資源관리법파동이지요.

—民韓黨의 金鉉圭간사가 黨內 강경주장을 뱃심으로밀어붙여 예결위를 정상화시킨 것이란지 鄭在哲예결위원장이 매일아침 의원회관의야당측 예결위원사무실을 찾아다니며 협조를 요청한 노력도 주효했다고 볼수있어요.

—이번에 稅法과 예산심의과 珍기록을 만들게한 실명거래법안과 자원관리법안 파동은 좋은 경험으로 삼아야 할것같아요.

—실명제의경우 실시의지가 아무리 강하더라도 국회에 내놓기전에 사전에 충분한 준비와 검토를 거쳐야한다는 점을 정부는 명심해야 할것입니다.

—자원관리법안도 어떻게 보면 안이한 관료적타성이빚은 착오라고 볼수있지요. 국민특히 의원들에게 충분한사전홍보없이 安保法이니 당연히 처리할것이란 생각은차제에 불식해야 할것입니다.

—예결위에서 질의하는 의원의 자질이나 자세에도 어느정도의 문제점은 있었지만 답변하는 국무위원들이 답안지를 모두 소화하지못했다는데 더큰 문제점이있었지요.

—답변하는 장관은 소관부처의 기초적인 통계도몰라절절매고 질의하는 의원들이實務숫자를 들어묻는 모습도있었지요.

—그래서정치국회보다實務국회라는말도 나오고있지요.

—그러나 「實名가고 名만 남은」實名制와 재벌의 銀行독점으로 시끄러운 은행법개정안은 여전히 爭點으로 남아있어요.

—3일부터 재무위금융小委가 가동되면 한바탕 회오리바람이 불것은 분명하지만 예산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되었기 때문에 예상외로 싱겁게 끝날 가능성도 있읍니다.

—이번국회에서 새로 도입된 豫決委의 一問一答式 회의진행은 처음이라서인지 실패작으로 끝난것같군요.

—역시 一問一答의 妙味는 의원이나 각료나 문제의 핵심과 정곡을 찌르는 短問短答에 있는데 상당수 의원들이 본회의장으로 착각, 1시간넘게 重複三複의 長廣舌을 늘어놓아 눈살을 찌푸리게 했지요.

—나중 지역구배포또는 속기록용을 크게를 의식한것같아요.

—예결위 分科委심사에서는 마이크도 없이 육성으로 질의·답변을 전개한것이 과거와 다른 양상이었어요.

—崔順達체신부장관은 우편수입증가폭을 적게책정한 부분이 들통이나 야당의 집중추궁을 받은후 농어촌電化사업을 모업체에 수의계약한 사실이 계속 지적되자 갑자기 답변자료를 정리한후 팔짱을 끼고묵비권을 행사하여與野의원들을 분노하게했어요.

—지금까지 民正黨은 목청이 높은 野黨의원들의 질의를 경계해왔는데 이번 豫決委에서는 평소 톤이 높았던 洪思德, 朴寬用, 金台植, 金炯來의원의 질의에 경청할것이 많았다는 얘기들입니다.

—民正黨의 崔明憲·朴鍾寬의원등도 바른말 잘하는 의원으로 주목을 받았지요.

—상임위마다 제출된 議案에대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라는것이 있고 전문위원들도 비교적 양식에 입각한 검토를하는데 그중에는 한계를넘어선 보고도 있었어요.

—文公委에서 전문위원은 民韓黨이 제출한 언론기본법안에 대해 明快하게 (?) 결론을 내려 말썽이되었지요.

【정리=李以春기자】

◇이번 예산국회는 예산안만장일치통과, 增稅, 국방비삭감등 갖가지 珍記錄을 남겼다. 사진은 陣痛과 격론끝에 지난달30일 豫決委에서 새해 예산안이 통과된후 閣僚들과 의원들이 악수를 나누고 있는 모습. 【崔東完기자찍음】

기초통계모르는 長官에 원고代讀한議員 수두룩

「電話外交」로 발동건 나까소네 政權
「追豫」통과 첫 難題될듯 美,「명쾌한 意思」에 기대

【東京=宋孝彬특파원】「일하는 내각」을 표방하고 출범한 나까소네 (中曽根康弘) 정권은 「電話外交」로 발동이 걸렸다. 레이건 美대통령은 지난27일 나까소네수상에게 직접전화를 걸고 수상취임을 축하하는 한편 조속히 만나 상호간 국제정세에 관한 의견을 나누기로했다.

일본외무성 당국자는 나까소네수상이 통역을 두지 않고 레이건美대통령과 영어로 전화회담을 했다고 전하고 나까소네정권이 對美외교를 기축으로한 서방진영과의 우호증진에 힘쓸 것을 입증한 것이라고 풀이하고 있다.

나까소네수상은 29일에도 싱가포르의 李光耀수상, 태국의 프렘수상, 말레이지아의 마하티르수상등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제국의 수뇌들에게 취임인사를 한데이어 30일에는 全斗煥대통령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韓·日우호증진을 다짐했다.

나까소네수상이 이같이 수상으로 취임하자마자 아세안제국 정상들에게 전화외교를 편것은 일본이 아세안을 중시하는 외교자세를 나타낸것으로 아시아를 발판으로 국제사회에 진출하려는데 있다고 이곳 외교가에선 분석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나까소네수상은 내년1월 워싱턴을 방문, 악화됐던 美·日관계를 회복시키는 이른바 韓·日간 현안으로되어있는 경제협력문제를 타결할 방침을세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스즈끼내각은 말기에들어서 美·日관계가 악화된 상태에 있었었다.

스즈끼내각은 작년 5월 美·日공동성명을 발표, 양국동맹관계의 논란을 내외에 선언했으나 일본방위력의 증강과 시장 개방등 美·日간의 현안문제가 처리되지않아 양국관계는 태평양 전쟁전이와같은 상태로 빠졌었다.

워싱턴당국은 일본정치인으로서는 보기드물게 자기의사를 명쾌하게 말하는 나까소네내각에 대해 기대를 걸고 있다.

레이건美대통령이 나까소네수상에게 직접전화를 걸고 「러브·콜」(사랑의 전화)을한것도 레이건정부가 나까소네내각에 대해 기대를 걸고있다는 표시인 것이다.

나까소네 내각은 3일 국회에서의 시정연설에서 국가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자위력증강을 강조하고 행정개혁과 적자재정의 재건을 정치지표로 내세울 방침이다.

이처럼 나까소네내각은 스즈끼정권과는 달리 산적한 현안문제들을 정면으로 부닥쳐 해결해 나가려는적극적인 자세를보이고있다.

나까소네 수상은 29일저녁 맨스필드 駐日미대사의 예방을받고 현안문제에 대해 30분동안 회담했다.

이자리에서 맨스필드 대사는 레이건대통령의 친서를전달하고 美의회에 보호주의論이 대두되어 있으며 일본이 적극적인 시장개방과 방위노력을 해주지않으면 미·일관계가 어렵게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대해 나까소네 수상은 미·일관계의 중요성을 잘 이해하고있으며 방위력증강과 무역통상문제에 관해서는 자신이 직접 체크, 각료와 상의하여 처리하겠다고 말해 나까소네주도형의 행정운영을 강조했다.

미국이 나까소네정권에 기대하는것과는 달리 일본의 국내사정은 순탄치못해 미·일현안문제가 쉽게 해결될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없다.

나까소네내각이 다나까派편중내각으로 구성되어 비주류로 부터의 거당적인 협력을얻지못할 뿐만아니라 야당도 정면대결할 자세를 보이고있어 일본정국에 먹구름이 드리워지고있다.

나까소네정권은 무엇보다도 12월20일까지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세입결함을 메우는 추경예산안을 통과시켜야한다.

추경예산안심의에 있어서 總評과 사회당은 공무원의 봉급인상을 억제한 조치등에대해 반발, 1일부터 국회주변에 연일1만명의 노조원들을 동원하여 데모를 벌이면서 예산투쟁에 나설 것을 다짐하고 있다.

다나까派편중의 내각편성에 반발하여 비주류뿐아니라 나까소네·스즈끼파등 주류일부에서도 불만이 일어나 추경예산심의에서 얼마간의 혼란이 일어날 것이 예상되고 있다.

나까소네수상이 매派的인 정치자세를 지니고있다는 점에서 사회당등 야당은 국회해산을 각오하고서라도 정면대결할것을 선언, 對나까소네내각 투쟁에 들어갔다.

지난 46년 28세로서 중의원에 처음 당선한 나까소네수상은 해군장교의 복장으로 登院했고 맥아더점령기간중에는 일본국가는 「喪中」이라면서 검은넥타이를 매는등 매派的 민족주의자세를 보여왔다.

나까소네수상은 자민당총재로 취임한뒤 25일 첫기자회견에서 『지금의 평화헌법은 자유주의, 평화주의, 기본적 인권, 국제협력등 훌륭한 원칙을 포함하고있지만 어떤 제도나 법률도 완전한 것이란 없기때문에 헌법을 재검토하여 더욱 좋은 것으로 바꾸어나가자는 것은 올바른 생각이라고 말했다.

모든일에 피하지않고 맞서 결단을내리려는 나까소네수상이 美·日관계의 정상화, 韓·日경협문제의 타결, 추경예산안의 통과, 행정개혁등 어려운 문제들을 과연 어떻게처리해나갈 것인가가 주목된다.

◇새로 출범한 나까소네 내각의 주요각료들의 얼굴. 나까소네수상 (아래줄중앙)은취임과동시에 각국수뇌들과 「電話外交」를 펼치는등 對외문제에 있어 적극적인 공세를 취하기시작했다.

메아리

309日

金昌悅 <編輯委員>

朴尙恩양 살해사건의 鄭在巴피고인(22)은 29일 저녁 5시45분, 구속된지 3백9일만에 풀려 났다 (한국일보 11월30일자 11면).

그는 죄를 짓지 않았으므로 무죄석방이 당연하며, 공정한 판결을 내려준 재판부에 감사한다고 했다. 그의 어머니는아들의 억울한 옥살이가 원통하다고 했다.

한 젊은이가 죽죄의 너울을벗고 풀려난것은 듣기에 흐뭇한 일이다. 형사피의자의 人權이 그만큼 신장되고 있다는 증좌도된다.

그러나 이번 일은 한젊은이와 그의가족들의 일로만 국한할수 없는 문제들도노출시키고있다.

鄭군이 제2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것은 11월20일의 주말이었다. 그의 석방은 그로부터 9일이 걸렸다. 왜 그래야만 하는가. 이래도 좋은가.

鄭군의 변호인은 무죄판결이 주말이었으므로 일요일을 지나 22일 보석을 신청했다.

법에 보면 법원이 보석을 결정할 때는 검찰의 의견을 들어야한다 (刑訴法97條④). 그 기일은 3일. 검찰은 만기를 기다리지않고 23일 보석 반대의 의견을 냈다.

이에 불구하고 재판부는 26일 鄭군의 보석을 결정했다. 이결정에 대하여 검찰은 卽時抗告를 할 수가 있다 (同②). 그기일은 3일. 마감은 29일밤 12시가 된다.

검찰은 抗告여부를 결정못한채 시간을 끌다가 29일에 이르러 鄭군의 석방을 지휘, 마감시간을 6시간여 앞두고 鄭군의 구속을 풀었다.

이 것이 「억울한 옥살이」 3백9일중 9일의 내역이다.

이 경위는 앞서 尹景花씨사건의 高淑鍾피고인이 겪은 대로와 같다. 다만 高피고인의 경우는, 보석결정과 동시에 검찰이 抗告를 포기한 덕으로, 석방까지의 시간이 덜 걸렸다.

아마 이런 차이는, 高피고인은 경찰의 수사한 사건이요, 鄭피고인은 검찰이 직접수사한 사건이란데서 온다. 이른바 「검찰사건」에 대한 미련, 그때문에 난처해진 체면때문에, 검찰이 抗告여부를 미적거리는 동안, 鄭피고인의 「억울한 옥살이」는 이틀이상 더끈 것이다.

원칙대로 하면, 법원의 무죄판결로구속영장은 효력을 잃는다 (刑訴法331條). 그게 사리에 맞는다. 죄가 없다면 석방해야 한다. 페리·메이슨물의 텔리비전 公判劇에서, 그 끝장은 언제나 공판정에서 당장 풀려난 피고인 모습이다. 이게 당연한 法理다.

그러나 우리 법에는 검사가 10년이상을 구형한 경우는 피고인을 석방하지 않는다는 但書를 달고 있다. 모든 형사피고인을 무죄로 추정한다는 대원칙 (刑訴法275條)을 동진 규정일뿐 아니라, 검찰의 의견 (求刑)을 전적으로 잘못되었다고 물리치면서, 검찰의 의견에 따라 피고인의 석방여부를 좌우하는 모순이 있다.

이때문에 무죄판결을 받은 피고인도, 그의 구형량이 10년을 넘으면, 보석에의하지 않고는 확정판결전에 풀려날 길이 거의 막혀버린다.

게다가 피고인이 보석을 신청하면, 앞에 본대로, 법원은 검찰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보석결정이 난 뒤에도 검찰이 卽時抗告하면, 보석의 집행은 당연히 늦추어진다.

이 가운데 특히보석결정에 대한 검찰의 卽時抗告權은 문제다. 본디의 刑訴法에는 「보석을 허가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抗告할 수 없다」고 명문으로 못박고 있었다. 보석제도의 활용을 보장하려는 조항인데, 維新立法 때 이조항이 정반대로 고쳐진것이다. 그때의法개정에서 拘束適否審을 폐지한 것과 同軌이며, 改革立法으로 拘束適否審을 부활시키면서, 검사認知사건을 제외한 것(11월24일자 本欄 「예외이니…」)과 같은 발상을 깔고 있다.

이결과로 보석의 길마저도 더이나 좁아졌다. 재판부도 보석결정에 너무 신중한듯이 보인다. 재판부는 신청에 의하지 않은 職權보석과 구속취소의 권능이 있으나 좀처럼 그런 결정은 내리지 않는다. 그런줄을 아니까, 피고인도 보석신청을 어려워한다. 高피고인의 경우 1심판결 직후 보석 신청을 냈다가 자진취하한 것이 그런 예다.

이렇게 해서, 우리 형사 제도는 不羈定員制의 理想을 담아 있다.들어가기는 쉬워도 나오기는 어려운 것이다.

형사제도는 불구속이 원칙이요, 구속은 例外라는데, 지금의 제도와 현실은 그 원칙과 例外를 뒤바꾼 꼴이다. 이같은 逆轉현상을 강화한것이 피고인의 人權보다, 검찰의 의견을 위에 놓은 維新조항들이다.

분명 維新의 잔재는 일소되어야한다. 요즘 人權사상의 진전발전에 비추어서도 현사법규의 전면 재검토는 시급한과제다.

海外토픽

中共80년대 出産붐
★60年代 출생자 可姙期

중공은 1960년대에 태어난 어린이들이 이제 可姙期에 이르렀기 때문에 당국의 강력한 인구억제정책에도 불구하고 80년대에는 새로운 출산붐이 일것이라고.

중공의 인구문제학자인 호우·웨후라는 이학자는 한 관영주간지 최신판에서 지난 60년대중반에는 인구증가율이 현저하게 두드러진데다가 당시 작년 결혼적령기의하한선을 毛치하면서 보다 평균5살이나 적은 남자22세, 여자20세로 낮춘것도 인구증가요인이 되고있다고 지적했다는 것. 【北京=AP】

思考촉진의자 개발
★經營者들에 큰도움

앉는사람의 두뇌회전을 보다 원활히 시켜주고 있는 이른바 「思考촉진의자」가 최근 스프링필드에서 열린 美발명가협회 모임에서 선보였다.

이 의자를 고안한 일본인 나까마쓰·요시로씨는 의자밑부분에서 미세한 진동을 일으켜 앉는사람의 두뇌에로의 혈행을 촉진시키는 방법으로 두뇌활동을 극대화 시킨다고 그 원리를 설명하면서 이의자가 학생, 과학자및 최고경영자등 특히 머리를 많이 써야하는 사람에게 큰 도움을 줄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스프링필드 (美매사추세츠州)=AP】

◇模擬 탱크戰 프랑스戰車부대의 사병들이 미니어처탱크들을 움직여 모의 탱크戰을 벌이고있다 【키스톤=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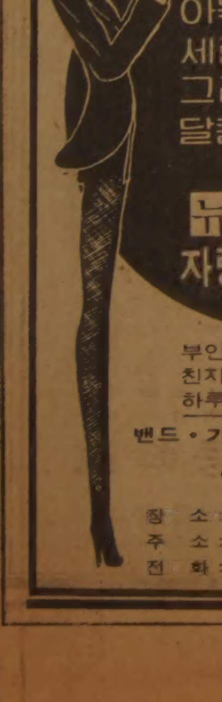
순식간에 10억횡재
★슬러트머신 잭팟당겨

도박을 너무 좋아해 경찰직을 그만둔 택시운전사가슬러트머신을 하던중 잭포트가 터져사상최대상금인1백25만달러(약10억원)를 횡재했다고.

그는 동전3개가 남았을때 행운의 잭포트가 터져 날듯이 기뻤다고 흥분. 【아틀랜틱시티(美뉴저지州)=AP】

新聞비판 가슴아파
★대처首相 선데이紙 회견

마거리트·대처 영국수상은 최근 일요신문 선데이·피플과의 회견에서 신문으로부터비판을 받으면 마음이아프지만 되도록이면 이를무시하려 애쓴다고 토로. 【런던=AP】



뉴서울

아늑한 분위기와
세련된 서비스
그리고
달콤한 음악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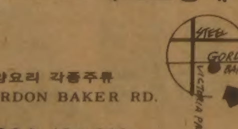
뉴서울만의
자랑입니다.

부인 모시고
친지들과 어울려
하루의 피로를 날려 버리세요

밴드·가수·무용단 매일공연함

●연중무휴●

장 소: 오리엔탈 팔레스 2층
주 소: 529 BLOOR ST. W
전 화: 533-3545~6, 533-1500



조용하고 아담한 분위기
교통편리한 장소에서!
여러분의
연말·연시 파티는 Macho 레스토랑에서

■메뉴: 한식, 서양요리 각종주류
■주소: 4035 GORDON BAKER RD.

498-1300, 496-2196

MACHO레스토랑 이해창

SHANGHAI RESTAURANT

드디어 해삼탕 개시!

●군만두 ●찐만두 ●짜장면 ●우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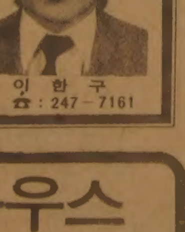
596-7311
334 SPADINA AVE.
NEAR KENSINGTON MARKET

Grant Brown

GM

■각종 웨곤(WAGON)
CADILLAC, PONTIAC
BUICK, GMC VAN.
■잘 정비된 각종 USED CAR

1575 WESTON RD.



이한구
☎: 247-7161

코리아 하우스

KOREA HOUSE

한식전문
즉석불고기
정종, 맥주

666 BLOOR ST. W.
TORONTO, ONT.
*536-8666

부동산및사업체
매매 알선 상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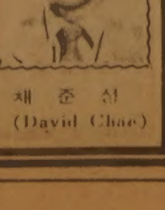
SINCERE REALTY INC
2814 Victoria Park Ave.
Willowdale, Ont., M2J 4A9

각종의 사업체와 부동산 일체의 매매를 위하여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사오니, 여러분의 많은 지도 편달과 이용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 주택, 대지, 상가, 사업체, 투자처, 아파트
* 이민이나 고소득층을 위한 투자 알선.
* 좋은 사업계획에 투자나 동업인 소개
* 토론토에 새로 오셨거나 오실분 안내.

— 경 력 —

★ 마니토바주립대학 졸업
★ 슈퍼마켓 운영(위니팩)
★ 무역회사 경영(밴쿠버)
★ 부동산업 종사(다년간)
현재온타리오부동산 브로커



전화 (B) (416)497 8900 채준신
(R) (416)633 7092 (David Chae)

中共、輸出보다 수입 力點

趙紫陽、6차 5개년계획 발표

경제成長率 4~5%로

年人口증가 1.3%유지

【北京聯=聯】 중공은 오는 85년까지 연평균 4~5%의 경제성장목표를 달성하고 51억元(25억달러)의 무역적자를 감수하면서 수출보다는 수입에 역점을 둔 무역정책을 펴 나갈 계획이라고 중공수상 趙紫陽이 30일 말했다.

趙는 이날 전국인민대표대회(全人代)에서 오랫동안 지연돼왔던 제6차 5개년계획(81~85년) 세부내용을 발표하는 가운데 계획기간중 중공의 무역은 경제전반의 연평균 성장률보다 2배이상 빠른 속도로 신장될 것이라면서 그같이 밝혔다. 그는 수출품으로는 섬유·경공업제품·공예품·기계류·전기제품에, 수입품으로는 새로운 기술과 장비에 각각 중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趙는 이기간중 전체 경제성장률을 年4~5%로 잡고 있으나 대외무역 성장률은 연평균 8·7%로 모두 8백55억元(4백30억달러)에 이를 것을 목표로하고 있다면서 수출은 9·2%, 수입은 8·1%의 신장률을 보일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또 85년까지는 곡물수확량이 80년보다 12·6% 늘어난 3억6천만톤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나 그간 인구가 5천2백만가량 늘어나 10억6천만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돼 인구증가율을 年1·3%미만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일반 임금인상과 함께 중년층의 과학기술자, 교사, 각종전문가등 지식인계층의 임금을 인상하겠다고 약속했으나 구체적인 수치는 밝히지 않았다.

趙는 아울러 모든 근로자·사무원·서비스종사자들이 사리를 버리고 생산성향상에 힘써줄것을 당부했다.

◇事故후의 대처首相 대처英國수상이 30일 그의 관저에서 소포폭발사고가 발생한후 의사당으로 가기위해 손을 흔들어보이며 다우닝10번街를 떠나고있다. 【런던30日AP電送=聯】

英수상 官邸 小包폭발

보좌관1명 輕傷 4시간후 下院에도 배달

【런던AP聯=聯】 런던다우닝가10번지에 있는 대처영국수상관저에서 30일 한동물보호단체가 보낸것으로보이는 폭발물소포가 터져 수상보좌관 1명이 가벼운 상처를 입었으나 대처수상은 무사했다고 런던경찰이 발표했다.

런던경찰은 수상관저에서 폭발한 소포속에 지금까지 알려진바 없는「動物權민병대」라는 단체의 편지가 들어있었다고 밝히고 수상관저 폭발사건발생 4시간후 하원에도 4개의 비슷한 폭발물소포가 배달됐으나 응급조치로 폭발하지는 않았다고말했다.

수상관저 폭발사건직후 북아일랜드에서는 한괴한이 벨파스트의 한 라디오방송국에 전화를 걸어 수상관저에 폭발물소포를 부친것은 에이레민족해방군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스코틀랜드민주주의자 단체는 이번 폭발사건이 자기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하고 이는 스코틀랜드의 모더웰에 있는 국영철강회사의 부분적 가동중단에 대한 보복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런던경찰대변인은 「動物權민병대의 범행주장을 매우 심각하게 간주하고 있다」고 말함으로써 수상관저와 하원에 폭발물소포를 보낸것이 동물권민병대의 소행일을 밝혔다.

"케네디、大統領不出馬"

美NBC報道

【보스턴AP聯=聯】 에드워드·케네디미상원의원은 1일 기자회견을갖고 오는84년의 차기 미대통령선거에 출마하지 않을것임을 발표할것으로 예상된다고 美國의 보스턴·글러브紙와 NBC뉴스방송이 보도했다.

보스턴·글러브지는 이날 케네디의원이 워싱턴에서 기자회견을갖고 그같은 불출마의사를 발표할것이라고 전했다.

이신문은 또 케네디의원의 친지와 정치적동료들이 그에게 대통령선거에 다시 출마하지말것을 종용해왔다고 밝혔다.

美、한국에 水陸양용차량 42대 판매

【워싱턴聯】 美국방성은 한국에 대해 약 5천9백만달러 상당의 수륙양용차량 42대를 판매할 계획이라고 29일 의회에 통보했다.

美국방성은 이 수륙양용차량이 한국해군을 강화시키고 지역안보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李基文·金完鎭교수 학술원정회원 임명

金亨奎박사도 추대

학술원은 1일 李基文교수(서울大·국어학)와 金完鎭교수(서울大·국어학)를 학술원정회원으로 새로 임명하고 임기4년이 만료된 金亨奎박사를 임기종신의 학술원원로회원으로 추대했다.

아프간 蘇軍 戰力강화

카불市 방위위해 샘6미사일 代替

【뉴델리AP=聯】 아프가니스탄주둔 소련은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市의 방위를 강화하기위해 최초로 샘6미사일 발사대 18개를 카불인근에설치했다고 뉴델리의 한 외교관이 30일 밝혔다.

신원을 밝히지않은 이 외교관은 이날 기자들에게 소련군이 최근 카불市 방공을 위해 기존배치된 샘2미사일을 보다 강력한 신형샘6미사일로 대체하기위해 샘미사일 발사대18개를 카불市 인근에 설치했다고 밝히면서 이는 카불市의 대공방위력을보다 강화하기위한것이라고 덧붙였다.

홍콩 新晩報편집장 소환

中共、간첩혐의 연금상태

【北京AP=聯】 홍콩의 중공계신문인 新晩報의 편집장인 로·후씨가 미국을위해 스파이 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조사받기위해 北京에 6개월째 구금되어있다고 정통한 중공소식통들이 29일 밝혔다.

이 소식통들은 로·후가 美정보기관들과 관련을 맺고있다는 혐의로 지난5월 북경으로 소환되어 가택연금상태에 놓여 있다고 말하고 北京의 公安局(경찰)이 최근 일단의 중공작가들에게 로·후가 美정보기관을 위해 일해오고 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그러나 로가 정식으로 고소됐는지 또 정확한 혐의사실이 무엇인지는 알려지지않았다.

레이건 어제 브라질 到着

【브라질리아聯=聯】 5일간의 中南美4개국 순방길에나선 레이건미대통령은 30일밤 첫방문지인 브라질에 도착했다.

레이건대통령은 브라질리아의 공군기지에 도착, 조아웅·피게레이도 브라질 대통령의 영접을 받았다.

브라질서 感電사고

80명死傷、電柱받아

【나탈(브라질)EFE=聯】 브라질의 리오·그랜도·도·노르테주수도인 나탈에서 30일 감전사고로 29명이 사망하고 50명이 부상했다.

◇브라질방문한 레이건 브라질을방문중인 레이건 대통령(앞줄 中央)이 30일 브라질리아에서 거행된 환영식에서 부동자세로 서있는 모습. 레이건 대통령 오른쪽은 조지·슐츠美국무장관, 왼쪽은 조아웅·피게이레도 브라질 대통령。【브라질리아30日AP電送=聯】

北傀·리비아關係긴장

기술자 醜行未遂관련

【제네바=聯】 북괴와 리비아는 리비아에 파견된 북괴기술자들의 리비아처녀 강간미수 사건으로 양국관계가 긴장됐다고 프랑스의 주간지 렉스프레스가 3일자 최신호에서 보도했다.

렉스프레스誌는 北傀기술자 3명이 리비아 엘·베이다에서 한처녀를 강간하려했다는 비난이 있자 분노한 마을주민들이 북괴근로자 야영캠프를 습격, 1백명가량의 북괴기술자및 근로자들과 패싸움을 벌였다고 밝혔다.

記者의 눈

脫아프간 序曲

소련이 아프가니스탄 수렁에서 명예로운 퇴진의 실마리를 찾고 있는것같다. 마치 미국이 60년대후반 월남전에서 그랬던것 처럼. 지아·울·하크 파키스탄 대통령은 자신이 브레즈네프 장례식에서 안드로포프 신임 소련공산당서기장을 만났을때 안드로포프가 條件附이긴 하지만 소련군의 아프가니스탄 철수의사를 분명히 밝혔다고 전했다.

브레즈네프에서 안드로포프로 소련지도층이 개편된것은 소련이 아프가니스탄사태 해결에 이니셔티브를 쥐고 나올수있는 좋은 계기가 될수 있을것이다.

분쟁당사국인 강대국의 지도층개편은 항상분쟁의 해결에 촉매제가 되어왔다. 偶然이야 어찌되었든간에 트루먼에서 아이젠하워로 美대통령이 바뀌면서 한국에 休戰이 성립되었고 존슨에서 닉슨으로 美대통령이 바뀌면서 미군은 월남에서 철군했다. 53년 스탈린의 사망역시 교착상태를 못벗어나고 있던 한국전休戰협상에 돌파구를 마련해준 하나의계기가 되기도했다.

새술은 새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俗談이 국제무대에서도 통하는 것일까.

아프가니스탄 사태는 브레즈네프의 으뜸가는 외교실책으로 꼽히고 있다. 소련은 아프가니스탄침공으로 비동맹국가와 회교국가및 제3세계에서 침략 약소민족의 해방자임을 자처하던 소련의 이미지가 침략자의 이미지로 뒤바뀌어 버렸다. 소련은 또 79년12월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한 이래 1만명이상의 인명을 잃었고 1백억달러의 전비를 쏟아넣었다.

이에앞서 월남전은 現代史의 潮流가 강대국이 약소국가의 민족전쟁과 내전에 개입해서는 안되는 방향으로 가고있음을 웅변적으로 보여주었다. 브레즈네프는 바로 코앞에서 벌어진 월남전의 敎訓을 무시하다 進退兩難에 빠져버린것이다. 미테랑프랑스대통령은『아프가니스탄사태야말로 소련의 살속에박힌 毒이며 그유일한해결방안은 아프간민족의 自決을 인정하는길뿐』이라고 적절히 지적했다.

아프가니스탄사태의 돌파구는 사태의 장본인인 브레즈네프장례식때부터 보이기시작했다. 안드로포프는 브레즈네프 장례식을틈타 아프가니스탄 인접국인 파키스탄의 지아·울·하크대통령、인도의 간디수상、중공의 黃華외상과 연쇄회담을 가졌다.

막상 당사국인 아프가니스탄의 카르말대통령은 뒷전으로 밀려나 버렸지만 만약 브레즈네프가 아직도 살아있다면 아프가니스탄에서 소련의 명예로운퇴진을 시사하고 나왔을까. 내심으로는 그러고 싶었을지 몰라도 이를 실행에 옮기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과오를 공개적으로 인정하기를 꺼리는 법이니까. 【李炳圭기자】

內外動靜

▲全斗煥대통령은 1일멕시코 대통령으로 취임한 미겔·델·라·마드리드·우르따도 대통령에게 취임을 축하하는 電文을보냈다.

人事異動

民正黨 ▲釜山2(西區)지구당사무국장 李淳九 ▲全北6(井邑·高敞)〃 李在珍(1日字)

貿易振興公社 ▲貿易電算部長 金演湜 ▲企劃管理部企劃役 洪禮杓 ▲商品情報部長 吳世圭(1日字)

本社來訪

▲秋仁錫씨(東亞投資金融社長) 張漢圭씨(〃副社長) 裵顯聲씨(〃常務) 開業인사차.

한국일보詩壇

겨울 나무는

趙 順 愛

종당엔 벗는구나
영악스런게도 꽃피우고 열매 맺더니
그 소망이 다해
무당춤이라도 한 마당
벌이는가 했는데

하루 밤 내내 으스스
춥고 춥기더니
죽진 않기로
새봄 약속 찰떡같이 처대 놓고
제 서름에 부르르 몸서리 치고

겨울나무는 마주 서서
이제야 저를 내보이며
홀랑 벗었구나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 〈280〉

朴婉緒 作 / 金光培 畵

부드러운 겨울 ⑥

『인사드려라. 고마운 아주머니시다.』

이층에서 계단을 밟아 내려와서 오두커니 멈춰선 수지한테 오목이는 자랑스럽게 아들을 인사시켰다. 소년이 공손하게 머리를 숙였다. 까맣고 마르고 휘청한 소년이었다. 워낙 오목이가 작기 때문인지 벌써 키가 어미를 능가했다.

『몇살이니?』

『열한살이에요.』

『숙성도 해라.』

소년이 흰 이를 드러내고 웃었다. 소년의 밝고도 수줍은 표정은 수지 마음에 들었을 뿐더러 이상한 갈등마저 자아냈다.

지지리도 못사는 가난, 얽히고 설킨 의혹, 질투와 사랑의 어두운 그림자, 그런 속에서 태어난 다섯 아이란 수지 상식으로는 좀 더 러뭅고 교활하고 더럽고 눈치꾸러기여야만 했다.

석이와 혀이가 운전기사와 함께 와자지껄 스케이트장으로부터 들어왔다. 수지는 아이들 얼굴에 떠오른 건강한 홍조와 쾌활한 흥분을 흐뭇해하면서 문득 그녀의 아이들과 소년이 한데 어울려 놀게 하고싶다고 생각했다.

남편이 운전기사와 바둑을 두는것도 질색이었던만큼 수지는 아이들의 교우관계에도 각별히 신경을 썼다. 성적좋고 집안 좋고, 성격 온순한 아이하고만 친구하도록 까다롭게 보살피고 타일러온 터였다. 어디로 보나 거칠게마구 자랐을 소년과 담박 어울리게하다니 천부당만부당한 생각이었다. 그러나 수지는 한번 떠오른 그 생각을 걷잡을수가 없었다.

『이름이 뭐냐?』

수지는 뭔가 몹시 조바심하며 소년에게 물었다.

『일남이에요.』

『얘들아, 일남이를 이층으로 데리고 올라 가서 같이 놀렴. 일남이는 열한살이니까 형이라고 불러야한다. 싸우지말고…』

식모애의 눈이 휘둥그래지면서 일남을 훑어보았다. 몹시 놀란 모양이었다.

『마당에서 놀잔』

일남이가 날쌔게 마당으로 뛰어나가면서 소리쳤다. 아이들도 덩달아 두팔을 휘 저으며 마당으로 나갔다.

『왜 유기사가 안오고?』

『사모님이 제가 고아원때부터 알던 사이란 걸 알고 부터 그 사람 또 샘이 나와지지 뭐예요.』

『왜 또 손 찌검을 하던가?』

유기사, 그 무지막지한 사내가 다 자라기도 전에 늙어버린 것 처럼 작고 조글조글 피곤이 삼켜한 오목이에게 함부로 손찌검을 했다고 생각하자 수지는 부르르 치가 떨렸다.

『아녜요. 사모님』

『또 사모님이야』

『아니예요 언니。그냥혼자서 괜히 화를내고 그래요。우리가 고아란는걸 아는 사람을 만날때마다 그 사람은 그렇게 화부터 내는걸요。언니로부터의 좋은 소식이라니까 좋아하면서도 그 동안 화 내고 미워한 게 제면쩍은지 안오려고해서 제가 대신 왔어요。정말 좋은 소식인가요?』

『진정오라버니한테 부탁했더니 담박서류를 해들이라지 뭐야。이달 안에 떠날수 있대』

『그렇게 빨리요?』

오목이가 해쓱해지는 것 같았다.

『좀 이른듯해도 기회 있을때 잡는게 좋을거야。바라고 바라던 기회아냐? 망설이지만』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 〈281〉

朴婉緒 作 / 金光培 畵

부드러운 겨울 ⑦

오목이는 핼쑥할뿐더러 매우 지쳐보였다。진땀으로 작은 얼굴이 콜드크림을 발라놓은 것처럼 번들대고 있었다.

수지는 오목이를 안방으로 끌어들여 방석을 권하고 춥지도 않은데 모포를 꺼내 무릎을 덮어주었다.

오목이는 수지의 이런 지나친 보살핌에 무관심한채 방안을 휘둘러보며 한숨을 쉬었다.

『얻어 맞으면서도 끔찍히도 좋았었나보지? 애아빠 떠나보내기가 그렇게 아쉬워? 유기사 말론 안에서 더 중뿔 쭝쭝 한다더니만…』

『아녜요。그게 아니라 제몸이 안좋아요。요새로 부쩍』

창밖에서 아이들이 어울려서 놀고있는게 보였다。일남이가 감나무에 기어오르기 시작했다。신을 벗어놓고 발뒤꿈치가 다 나온 양말발에 끈끈이라도 묻어있는지 일남이의 몸이 나무에 착착 붙는게 신기해보였다.

석이하고 혀이의 찬탄의 눈빛이 점점 위가장귀로 기어오르는 일남이를 뒤쫓고 있었다. 벌써 어둠이 마당의 나무그늘 사이로 소리없이 밀려드는데 일남이가 자랑스럽게 타고앉은 위가장귀엔 아직 남은 해가 황금빛으로 머물러 있었다.

그 아이의 아름다움에 수지는 목울기가 비틀리는듯한 고통을 느꼈다.

석이와 혀이가 밑에서 나무를 흔들려고했다。그러나 아름드리 거목은 끄떡도 안했다. 나무위의 아이는 편안하고 오만하게 홀로 지는 해를 보는지 밝은 이마가 밝게 빛났다.

수지는 석이와 혀이가 일남이보다 훨씬 크고, 살찌고 영양 좋아보이는 것과는 상관없이 일남이가 더 건강해보이는 것에 질투에 가까운 고통을 느끼고 있었다.

『비켜라 이 새끼들아』

일남이는 밑에서 열심히 끄떡도 않는 나무둥치를 흔들고있는 두 아이에게 큰 소리로 명령했다. 잔양은 이미 소년의 이마를 지나 옛집 뜰의 둥근 다락방의 지붕을 가까스로 불태우고 있었다.

나무밑의 아이들은 겁먹은듯 저만큼 흩어지고 소년은 두발바닥으로 매달림처럼 단단하게 나무 가장귀를 거머쥐고 우뚝섰다. 밝은 빛이 지나간 소년의 얼굴은 거인의그것처럼 불가사의해 보였다. 소년이 몸을 날렸다. 소년의 몸은 땅에 사뿐히 내려앉았다. 잔디가 질 좋은 쿠션처럼 소년의 엉덩이를 가볍게 다시 한번 들어올렸다. 자신의 몸의 탄력에 만족한 소년이 유쾌한 기성을 지르며 잔디위에 뒹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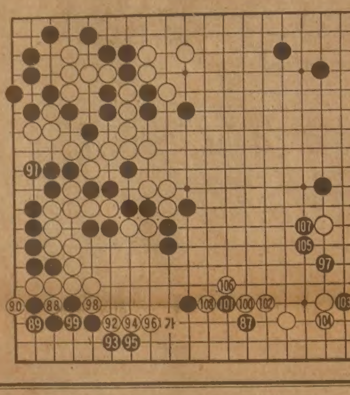
소년의 이런 놀라운 묘기에 넋을 잃고있던 혀이와 석이도 그제서야 마음놓고 깔깔대며 소년에게로 돌진해서 세몸뚱이가 한데 엉켰다. 어둠이 눅눅한 습기처럼 밑에서 차오르는 뜨락에서 아이들은 엎치락 뒤치락 공처럼 굴러다니면서 건강하고 즐거운 환성과 욕지거리를 연발했다. 일대 이인데도 혀이와 석이가 우세한 장난같지도 않았다.

혀이와 석이가 마음씨 좋은 거인의 휴식의 한때를 이용해서 거인의 머리칼도 쥐어뜯어보고 손가락도 꺾어보고 콧구멍도 후벼보는 철부지로 보이는데 비해, 일남이는 철부지한테 적당히 당해주면서 적당히 희롱도 하고, 너무 기어오를때는 따끔하게 버르장머리를 가르치기도 잊지않아 작은 거인다운 여유와 의젓함을 보였다.

第14期 名人战 挑战者決定리그

第4局 第6譜 87~108 (각5시간·덤5집반)

白 (4段) 姜 勳 〈1勝〉
黑 (4段) 李 相 澈 〈1勝〉



姜4단은 徐奉洙9단과의 두차례에 걸친 國手戰도전대국 외로도 名棋戰 본선대국을 수없이 치르며 그기량이 일취월장하고 있다. 특히 요즘은 원래의 끈기에다 침착한 수읽기를 겸하여 청소년답잖은 면모를 보여준다는 평도 듣게되었다.

이바둑에서도 姜4단은 大家然한 용병술로 白88서부터 94까지는 여유만만하게 하나씩 착실히 다듬어 왔다. 그런데 白96。일단「가」의곳에 둘까 생각한 모양이나 형세가 유리한 때문에 조심성을 부린것이다. 이에 이르러 李4단은 黑97로 승부를 걸어볼 밖에 없다.

黑軍 大勢를 만회

白은 98로 선수하더니 갑자기 100。黑97을 반격하기에 앞서 하변에 세력을 부식해둘 요량일까. 그러나 국후 평에서는 이수가 호사다마라는 총평。白100은 평범하게 105에 씌워 선제공격을 취하면서 피차 수습되는 흐름으로 이끌어야 『여전히 우세를 지속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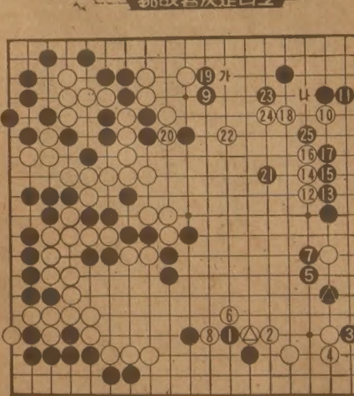
黑103、105때 白106과 黑107을 교환하고 白108까지。자의반 타의반으로 뜻밖의 변화가 일어났다。서로를 여기까지 기호지세로 달려온 격이다.

그러면 이결과는 어떨까。趙南哲8단의 해설을 인용하면『하변은 黑95가 뒷문을 노리고있어 대단치 않은데 반하여 우변은 우상귀쪽과 黑軍이 연관되어 방대한 세력을 형성했다』고 한다. 이로써 黑이 대세를 상당히 만회한 것이다. 【一凡】

第14期 名人战 挑战者決定리그

第4局 第7譜 109~125 (각5시간·덤5집반)

白 (4段) 姜 勳 〈1勝〉
黑 (4段) 李 相 澈 〈1勝〉



전보에서 黑▲의 승부수에 대하여 白은 즉시 5자리로 씌워놓았는데 일단 여유를 두고 스표이하 白8까지로 하변에서 변화를 꾀했지만 우변을 黑5、7로 도려주었과 대세를 크게 손상했다.

그러나 黑은 아직도 집이 부족하다. 보통이라면 모처럼 黑7까지된 상황에서 16자리를 견실하게 지키고 싶지만 그렇게도는 승산이 없다. 李4단은 8부가량 그 실리에 대담하게, 黑9。여기까지 최대한으로 세를 펴고 우변일대는 白의 삭감내지 침입을 맞이하여 승부처로 삼겠다는 것이다.

兩大軍 정면충돌

해설담당인 趙南哲8단은『黑9는 「가」자리에 벌려놓고 20에 막아버린 수를 노릴직도 하다』며 黑의 입장을 매우 어렵게 보고있었다.

과연 白10。여기서부터 삭감할 자리이다。다음 黑「나」면 일단 白11로 젖혀 黑이 막을때 白15로 자리를잡을 요량이다。그것을 방지하는 黑11인데 이제는 白12가 적절。이하 白18까지의 李4단은 원하던대로 공격목표가 생겼다。黑19를 선수하더니 21로 덤벼들고 白도 이싸움을 덥석받아 22로 대담하게 적의 배후를 노린다。

그러나 黑은 굽히지않고 23、25로 좁힌을 압축。일전불사의 태도를 보인다。바둑판 거의 반쪽이 들먹이는 일대공방전은 이리하여 백열화한다。【一凡】

82년도 인벤토리 스페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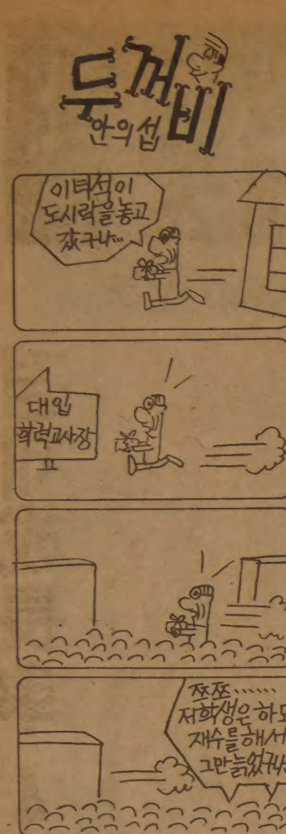
KAWAI PIANO·ORGAN 대매출!

날로 교민들의 성원에 힘입어
발전하고 있는 저희 회사에서는 파격적인
염가로 교민 여러분께 다시 대매출을
실시하고 있읍니다.

단기분할 판매실시 (3~6개월) 이 기회를 꼭!

KAWAI KEYBOARD CENTRE
MARKHAM PLACE MALL (Don Mills & Steeles)
Tel: (416) 881-8230
9350 Yonge St. (Hillcrest Mall)
Tel: (416) 883-9407
President · LUCAS YUN 윤 호 섭
Sales Manager · ALLEN DUMA

◎가와이 피아노는 세계에서 가장 큰 회사에서 생산되고 있읍니다.
◎가와이 피아노는 일본정부가 그 품질을 보증하는 우수한 피아노 입니다.
◎가와이는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Upright 피아노를 생산합니다. (Anthony Liversidge 기고 "House &Garden"에서)
◎가와이 Keyboard Centre는 유일한 한국인의 딜러이며 항상 교민을 위해서 최선의 봉사를 하고 있읍니다.



결혼예물보석및시계
미도파
다이아몬드, 반지, 목거리, 팔지, 목거리
B536-1892
H245-3539

"大入문제지 受驗生에 내줘야"

正答표기 여부 확인못해 큰 不便

대입학력고사의 문제지를 수험생들에게 즉석에서 돌려주는게 어떨까.

문교부는 지난69년부터 예비고사를실시했고 금년에는 대입학력고사로바꿔 시험을 치르면서 『수험생의 착각이나 잘못이있을때 이를추적, 수험생에게 이익을주기위해서』라는 이유로 문제지를 수험생들에게 개방하지 않고있다.

이때문에 전국수험생(83학년도의 경우 67만1천명)들은 정답을 썼는지를 정확히 기억하지못해 불편이 크다. 반면에 일부학원이나 잡상꾼들이 고사당일 문제지를 재빨리 입수, 대량으로 인쇄해 가두판매, 업자들의 편의만주는 결과를 빚고있다.

문교부는 2일실시되는 83학년도 대입학력고사에서도 예년과같이 하오늦게 문제와 답안만은 매스컴을통해 공개하기로했으나 문제지는 수험생들에게 주지않기로했다.

문교부는 이에대해 컴퓨터로 처리하는 현재의 학력고사평가제도에서 수험생들이 답안지에 이름과 수험번호또는 시험지형태(A·B)등을잘못기재했을경우 답안지를 근거로추적, 조사해 수험생본인을 찾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것으로 수험생의 이익을위한 조치라고 설명하고있다.

그러나 학부모들은 ◆수험생이 실수로 이름과 수험번호를 잘못 표기했거나 아예 표기하지않았을 경우 답안지만을 갖고도 추적이 가능하며 ◆답안지로서 추적이 불가능할때는 따로따로 회수된 문제지가 있어도 추적이 불가능해 결국 문제지를 회수하는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또 『설사 수험생의 이익을위한다고 하지만 자신이 표기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극소수의 수험생을위해 대다수가 불편을 겪는다는것은 이해가 되지않는다』고 말하고 『혹시나 문교부가 입시관리의 편의를위해서 또는 수험생들이 문제지를가지고 나갔을경우 정답표기의 오해등 사후관리의 혼란이 예상돼 이를 막기위해 회수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하고 있다.

문교부는 지난69년부터 학력고사(80년까지는 예비고사)를 실시해오면서 지난81년에는 문제지를, 82년에는 답안지를 각각 공개하기시작했다. 한편 문제는공개되지만 휴대가금지돼있어지난해부터 일부 출판사와 입시전문학원들이 고사당일 어떤경로인지는 알수없으나 재빨리입수한 문제지를 대량으로 인쇄, 수험생과 학부모를 상대로 고가로 판매해와 톡톡히 재미를 봤는데 올해에도 D출판사, J사등 입시계 전문학원등 10개업자들이 이미 인쇄준비를 마치고 신문광고까지 내고있다.

오늘 大入학력고사 일제히 실시

8시40분까지 入室해야

83학년도 대학입학 학력고사가 2일상오9시 전국31개지구 5백26개고사장(뉴델리임시고사장 포함)에서 일제히 실시된다.

이번 학력고사에는 총67만4천1백91명이 지원, 4년제 대학은 3·3대1, 전문대, 교육대를 포함할경우 2·1대1로 경쟁률은 금년(1·8대1)보다 다소높아졌다.

수험생들의 시험시작은 상오 9시이지만 20분전인 상오8시40분까지 지정된 고사장에 입실을 완료해야만한다.

한편 이번 학력고사에서는 수험생들에게 점심시간에 고사장밖에 나갈수있도록 허용했으나 서울시교위는 점심시간의 혼잡을막기위해 고사장밖출입을삼가해달라고당부했다. 학력고사가실시되는 전국 5백25개 중고교는 2일 임시휴업하게된다.

연탄가스 注意報

보사부는 1일 겨울철연탄가스중독사고가 급증하자 전국에 연탄가스주의보를 내리고 연탄사용가정에서는 잠들기전 5~10분동안 창문을열어 환기를조절하는등 사고예방에 힘써줄것을 당부했다.

美、自進出國요청거부

여인醜行후 은신한 北傀 오남철

"免責특권없어 재판받아야"

【뉴욕支社=林卜林기자】웨스트체스터카운티검찰은20일(현지시간) 미국여인을 추행한혐의로 기소된 유엔주재 북괴3등서기관 오남철을미국을 자진 출국케해달라는요청에대해 오가 외교관의 면책특권이없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오남철의 변호인인 스탠리·포크너, 해럴드·나이머손 두변호사는 이날오 검찰을 방문, 오남철이 미국법에 의해 재판을 받지않고 북한으로 돌아갈수 있도록해달라고 요청했었다.

웨스트체스터카운티의 칼 베가리검사는 오남철이 형사 면책특권이없으므로 법원에 출두, 미국법에따라 재판을 받아야한다는 로버트·롤러 유엔 미국대표부 법률자문위원의 의견을 받아들여 오의 자진출국요청을 거부했다.

베가리검사는『경찰은 오남철이 북괴유엔대표부 밖으로 나올경우 언제든지 체포할 준비가 돼있다』고 말했다.

CBS·TV는 이날 유엔위원회의 오남철관계회의와 추행현장을 녹화로 보도하면서 한국일보뉴욕지사가 제공한 오의사진을 코리아뉴스제공이란 자막과함께 보도했다.

◇대입학력고사를 하루 앞두고 예비소집에 나온 수험생들은 수험표를 교부받고 주의사항을 들었다. 한수험생이 고사시작전 녹음기에서 나오는 예비사이렌 소리를 확인하고있다.

2 母子 被殺屍로

大邱 두손묶이고 목졸린흔적

【大邱】1일낮1시께 大邱市壽城區泛魚洞3街29의16 조국제씨(48)집에서 조씨의처 전수자씨(40)와 조씨의장남 춘태군(18·대건고3년)등 모자가 양손이묶이고 목졸린 흔적이있는 피살된 시체로 발견됐다.

발견자인 조씨의 둘째아들 정태군(16·K고1년)에 따르면 이날낮 학교수업을 마치고 돌아와보니 어머니 전씨는 내실옆 작은방에서 수건으로 양손이 묶이고 목졸린 흔적이 있는채 반듯이 누워있는 상태로 숨져있었으며 조군은 안방에서 넥타이로역시 양손이 뒤로묶여 엎드린채 숨져있었는데 쇠망치같은것으로 후두부를 강타당한흔적이 있었다는 것이다.

조군은 이날상오 8시30분께 학교에갔으며 숨진춘태군은 2일 실시될 학력고사에 대비, 이날하오 예비소집에 나가기위해 학교에 가지않고 집에 있었다는것이다.

경찰은 안방속에 들어있던 의류등이 방바닥에 흩어져있는것을 발견, 피해품조사에 나서는 한편 낯범이 전문강도범의 소행으로보고 범인수사에나섰다.【聯】

승객15명 負傷

시내버스 개천굴러

【寧越】1일 하오2시10분께 강원寧越郡北面文谷1里 앞길에서 寧越邑을 떠나 平昌郡쪽으로 달리던 남경운수소속 강원5아1915호 시내버스(운전사 정만옥·41)가 운전부주의로 높이 2m의 도로변 냇가로 굴러 떨어져 승객 이연순씨(60·여·寧越郡北面文谷1里)등 15명이 중경상을 입고 寧越邑내 한일병원에서 치료를받고있다.

이날 사고는 운전사 정씨가 운행중 승객들과 잡담을 하다 운전부주의로 핸들을잘못 꺾어 일어났다.【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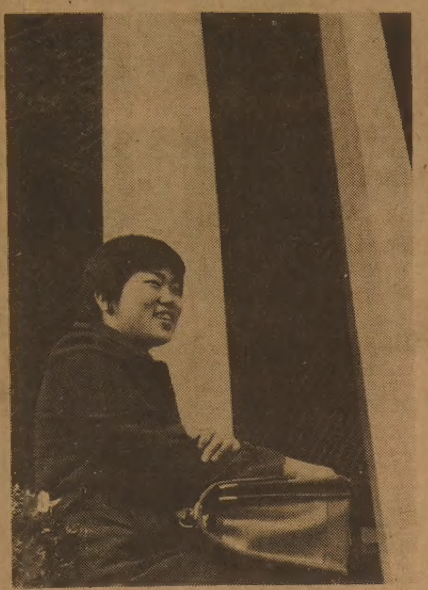
5行뉴스

◆국내선 航空料金 학생할인 대한항공은 1일부터 中·高·大학생에 대해 국내선전구간의 요금을 20%씩 할인해주기로 했다.

◆동거여인과 동반자살 기도 【群山】30일밤 11시30분께 전북群山市 秀松洞63 김판중씨(28)집 안방에서 김씨와 동거중인 서금임여인(23)이 연탄불을 피워놓고 동반자살을 기도, 김씨는 숨지고 서여인은 군산도립병원으로 옮겼으나 중태다.【聯】

"女消防官되어 報恩할래요"

10년전 서울 市民會館 화재 거꾸로 매달린 「奇蹟의 少女」



◇그날 그자리 10년후의 修雅양. 당시 화재로 전소된 시민회관자리에 새로지은 世宗문화회관앞에서 그날의 악몽을 되새겨보며 웃고있다. 처녀티가 완연한 修雅양의 꿈은 소방관이되는 것이란다.

◇惡夢의순간 72년 12월2일 시민회관 대화재때 4층회전창틀에 발이 묶인채 거꾸로매달려있는 修雅양. 이 사진은 당시계엄으로 보도되지못했다가 2개월후인 이듬해 2월에야 햇빛을 보았다. 이 극적인 장면을 잡은 본사 朴泰弘기자는 당시 네덜란드 국제보도사진전 은상과 한국기자상(금상)을 받았었다.

◇소방장 李榮柱씨

그때 그사람

그날의 惡夢씻고 이젠 어엿한 女高1년생

10년전 바로오늘(72년12월2일)서울시민회관 대화재때 극적으로 목숨을건졌던「기적의소녀」는 이제 어엿한 처녀티가 밴 여고1년생으로 자라났다. 대화재때 시민회관 4층의 창틀에 거꾸로 매달려 보는사람들의 가슴을죄게했던 趙修雅양(17·Y상고1년).

修雅양은 지금 그를 구해준 서울中部소방서 忠武路소방파출소장 李榮柱소방장(41·당시中部소방서소방사)처럼 소방관이돼 보은을 하겠다는 소박한 꿈을 키우고 있다.

53명이 목숨을잃고 76명이 부상당했던 그때 그화재로 전소된 시민회관은 그뒤 건물을 새로지어 이름도 世宗문화회관으로 바꾸는등 웅장한 예술의 명소로 면목을 일신했고 修雅양이 거꾸로달렸던 창틀은 흔적조차 없어졌다. 그러나 10년후인 지금도 한가지남는 안타까움은 修雅양의 왼쪽다리에 여전히 남아있는 흉터다.

그때 7세였던 修雅양은 아버지 趙榮進씨(48·加佐전화국경비원)의 손에 이끌려모방송에서 주최한 개국11주년기념 축하쇼를 구경하려 갔었다. 3층에서 공연을 나오려할때인 하오8시40분께 어디선가 『불이야』 하는 고함소리가 들려왔고 장내를 가득메운 4천여관중이 술렁거리기 시작했다. 趙씨가 점퍼품안에 修雅양을 안고 일어나기 무섭게 3층은 연기로 가득찼다. 계단 곳곳에는 이미 질식해 누운사람들이 즐비했다. 창밖에는 시민들이 발을 구르고 있었고 시민회관은 삽시간에 아비규환으로 변했다.

趙씨는 修雅양을 살리기위해 창틀에 올려놓고 자신이 먼저 빠져나와 딸을 구하려고 했으나 연기에 질식되는 바람에 10여m아래 땅바닥으로 추락, 의식을 잃었다. 창틀에앉아 아빠를기다리던 修雅양은 달아오르는 열기와연기를 못견뎌 몸부림치다 회전창틀이 돌아가는바람에 창틀에 발목이끼인채 거꾸로 매달렸다.

6분여동안 공포속에 사투를벌이던 修雅양은 이를발견한 李소방장이 굴절사다리를 4층에 갖다대면서 겨우 살길이 열렸다.

사다리가 거의4층에 닿을무렵 修雅양의발목이 끼었던 창틀이떨어져 李소방장의 안전모를때리고 곧 修雅양은 사다리끝부분에 아슬아슬하게떨어져 목숨을구한것이다.

67년 소방관으로 몸담은지 만 6년이되던 때에 기적적으로 한생명을구한 李소방관은 아찔했던 그순간을 잊지못해 당시 高麗병원에 입원중이던 修雅양을 찾아 매일같이 문병을 하기도 했다.

1백12일만에 퇴원한 修雅양은 그뒤 아버지로부터 자주 얘기를 듣고 李소방장을만나게 해달라고 졸랐으며 李소방장은 修雅양을 잊지못해 修雅양이 다니던 水원국교를 찾아가곤 했다.

修雅양은 제2의 생일이나 다름없는 12월2일을 맞아 李소방장을 집으로 초청, 조촐한 잔치를 벌였다.

10년전 소방사에서 소방장이 된 李씨는 당시의 구조작업등 15년동안의 소방관체험을 수기로써 서울시에서 최우수상을 받은「내 최선을 다했던 화재현장」을 이날 선물로 주었다.

修雅양은 그 사고이후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을 기피하는 경향을 보여왔으나 나이가 들면서 역경을 극복, 불만 보면 공중전화로 신고를하는등 예비 여자소방관으로서의 자질을 키워가고있다.【朴珍烈기자】

大邱에서도 택시 月給制

이달부터…15일근무 22만5백원

【大邱】서울·부산에이어 대구에서도 영업용택시운전사들에대한 월급제가 이달부터 실시된다.

1일 대구시 택시운송사업조합에 따르면 시내1백26개 택시회사는 이달부터 전면적으로 월급제를 시행키로결정하고 기준근무일수는 1일근무 1일휴무의 격일제근무원칙에따라 15일로하며 월급은 기본급 5만4천원 주월차수당 1만8천원 근무제수당11만8천5백원 능률급 3만원 등을합쳐 모두 22만5백원이 되며 16일은 23만4천9백원 17일은 24만9천3백원 18일 26만3천7백원이된다.

그러나 능률급은 14일이상 근무할경우에만 지급하게되며 근무제수당은 근무일수에 따라 차등지급키로 했다.【聯】

쇼人生

來韓한 브알라쇼단舞姬 로즈메리孃

"한국觀客 매너좋지만 박수엔 인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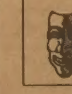
『쇼처럼 즐거운 인생은 없다』는 타이틀의 영화가 있었다.

정말 쇼는 그렇게 즐거운것인가.

허구헌날 피눈물나는 연습에연습을 거듭 해야하는 쇼의 주인공들이 지리하고 고될텐데 「즐거울수가 있을까」

「아마도 별생각없이 쇼를 즐기는 관객이 즐겁겠지」 라는 생각이 떠오를 것이다.

그러나 2개월전 브알라(Voila)쇼단의 일원으로 서울에 온 방랑의 무희 로즈메리양(사진)은 『쇼란 관객의 기쁨이기에 앞서 춤추는 자기자신의 즐거움이다』고 자신있게 정의한다.



로즈메리양은 『톱 라이트가 머리위에 쏟아지면 비로소 내가 존재함을 느끼고 환상의 조명이 온몸을감쌀 때 내가 살아있음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뉴질랜드가 고향인 그녀는 5살때부터 고전무용을 배우기시작, 발레학교를 졸업한 후 쇼 프러덕션에 가입해서 호주, 필리핀, 대만, 홍콩등의 위락가무대를 순회하며 반나의 팔등신으로 춤을 추어왔다.

한국관객의 매너는 점잖아서 좋지만 지나치게 근엄하고 박수에 인색한것 같다고 평하기도 한다. 서양관객들 처럼 무대와 혼연일체가 되어 열광하지 않고 강건너에서 불구경하듯 「구경」하는 정도라는것.

화려한 무대뒤에 숨은 그녀의 일생은 의외로 단조롭다. 저녁 5시부터 밤 10시까지 2회 공연이 끝나면 이내 공연장인 워커힐에서 잠속에 빠진다. 낮에는 창밖으로 한강을 내다보면서 독서를 하거나 시내쇼핑으로 소일하는데 드문 미인인 그녀에게 이따금씩 한국청년들이 데이트를 청하기도 하지만 미소로 거절한다. 우연한 만남은 불성실하다는 것.

『만국공용어인 쇼는 어떤 상황에 있던 계속되어야 합니다. 「즐김」이라는 인간의 숨은 욕구가 어떠한 이유로든지 박탈된다는 것처럼 불행한 일은 없을거예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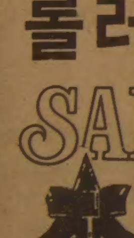
이국에서 세모를맞는 이南國의무희는 하루종일 크리스머스 카드를 손수그려 여름이 한창인 자신의 고향사람들에게 보낸다. 나이를 물으니 17세에서27세사이라는 대답. 쇼처럼 즐거운 인생을 살아가는 이무희에게 나이란 인간이 만든 쓸데없는 셈가림인지도 모른다.【韓基奉기자】

롤러스케이트
SALE $49.99
REG. $99.99
TORONTO STREET SKATE
541 PALIAMENT ST. TOR.
(TEL) 964-7757

오사까 하우스
각종 술을 써비스 합니다.
값싸고 맛있는 식당(초밥·국수류등)
부디 한번 찾아주세요(쓰끼야끼, 덴뿌라, 사시미)
※스토아시간 :
월~목 11 : 00AM~10 : 30PM
금요일 11 : 00AM~11 : 00PM
토요일 5 : 00PM~11 : 00PM
일요일 5 : 00PM~10 : 00PM
OPEN 7DAYS
12 TEMPERANCE ST.
☎ : 368-2470
Queen
Bay
Temperance St.
Ⓟ
Yonge
King

大中華藥材行
GREAT CHINA HERBS CENTRE
녹용과 인삼을
건강관리에
좋은 보약으로 당신의 건강을 유지해 드립니다.
동양인에게는 역시 인삼,
녹용처럼 좋은 약은 없읍니다.
● 우황청심환, 우황, 녹용, 웅담, 사향, 해구편, 정주사
건강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한의사 DR오와 예약해 주십시오. 지금이 바로 보약을 잡수실 시기입니다.
中國良藥 大量供應
482 DUNDAS ST. W. TOR. ONT.
MAILING : BOX 5181
STN. A TOR. M5W 1A0
☎ : (416) 977-8858-9
10AM → 8 : 30PM

맛사지
DIXIE HEALTH STUDIO
RELAX IN PRIVATE COMFORT
'Whirlpool' 'Sauna' 'Showers' 'Gym'
OPEN 10 a.m.-1 a.m.
5170 DIXIE ROAD
OPEN SUNDAYS 624-8822
(near airport)
MISSISSAUGA



「4角의링」은 「한국의 金鑛」

6체급 出戰 5명 決勝에
文成吉·金東吉은 南北대결서 快勝

제9회 아시안게임 13일째

【뉴델리=신문공동취재단】한국의 종합 3위가 확실해졌다. 한국은 테니스 개인전서 무더기로 金메달을 차지한데 이어 메달박스인 복싱이 호조를 보임으로써 印度와 북한의 추격권에서 벗어나 종합 3위를 굳히고 있다. 한국은 메달박스인 복싱서 3~5개의 금메달, 레슬링서 1, 농구·사격서 각각 1개씩의 금메달을 기대하고 있다.

日、中共 누르고 1위 올라서

한국은 오늘(2일) 열리는 中共과의 여자농구 결승전과 3일의 한국―中共남자 농구 결승전결과에 큰관심을 보이고있다.

30일 열린 복싱6체급 준결승전에서 한국의 許永模(밴텀) 朴基哲(페더) 金東吉(라이트웰터) 權鉉珪(라이트) 등 5선수가 각각 승리하여 결승전에 올라 銀메달을 확보했으며 플라이급 權彩吉는 판정패, 銅메달에 머물렀다.

육상 하이라이트인 마라톤 경기가 2일 하오5시(한국시간)에 열리는데 한국에서는 金鍾允(육군) 金梁峰(한국체대) 등 두선수가 출전한다.

기대를 걸었던 여자테니스 단식결승전에서 金壽玉은 日本의 이노우에에게 2―1로 역전패, 銀메달에 그쳤다. 배드민턴 여자복식 준준결승전에서 金鍊子·柳尙希조, 黃善愛·姜幸淑조가 각각 승리를 거두고 준결승전에 진출했다.

선두 中共을 맹렬하게 추격하던 日本은 이날 육상과 테니스서 金메달을 차지, 中共과 같은 51개의 金메달을 얻고 銀메달수에서 앞서 선두에 나섰다.

◇北韓 선수엔 질수없다 복싱 밴텀급결승에서 한국의 文成吉이 북한 편성오의 얼굴에 명중타를 날리고 있다. 【뉴델리30日=聯合】

◇배드민턴서 처음으로 中共 격파 1일 열린 배드민턴 준준결승전에서 한국의 金鍊子·柳尙希조가 강력한 우승후보인 中共을 2―0으로 물리치고 준결승에 올랐다. 【신문공동취재단=聯合】

배드민턴(女子복식) 준결에
金壽玉(테니스女단식) 日에져 銀

◇메달중간집계 <1일하오7시현재>

	金	銀	銅
①일본	51	47	36
②중공	51	42	31
③한국	18	21	29
④인도	11	12	16
⑤북한	9	16	17
⑥몽고	3	2	0
⑦필리핀	2	2	8
⑧파키스탄	2	1	2
⑨이란	1	3	2
⑩印尼	1	2	7
⑪쿠웨이트	1	2	1
⑫말聯	1	0	3
⑬싱가포르	1	0	2
⑭시리아	1	0	1
⑮태국	0	2	4
⑯레바논	0	1	0
⑯아프가니	0	1	0
⑱이라크	0	0	3
⑲홍콩	0	0	1
⑲바레인	0	0	1
㉑베트남	0	0	1

복싱

한국은 30일 준결승에서 6체급중 5명이 결승에 진출했고 2번의 남북대결에서도 두 판정승을 거뒀다.

라이트웰터급 金東吉은 북한의 손성찬, 밴텀급의 文成吉은 북한의 편성오를 각각 판정으로 눌렀다.

이로써 6개체급 결승에는 한국이 5명, 泰國이 3명, 그리고 북한이 2명씩을 올려놓았고 필리핀과 파키스탄은 각각 1명씩을 진출시키고 있다.

또 라이트급의 權鉉珪와 페더급의 朴基哲은 3일 결승에서 북한의 정조웅·여연식과 대결케 되었다.

세계선수권 대회 銀메달리스트인 金東吉은 북한의 손성찬을 3회들어 강한 좌우 훅으로 두들겨 착실히 득점, 승리를 거두었고 전날 눈부상을 입은 文成吉은 북한의 편성오와 난타전끝에 2、3회에서 라운드를 잡아 승리했다.

▲라이트급 權鉉珪(한국) 판정 프라단(인도) 정조웅(북한) 판정 아시스(필리핀)
▲라이트웰터급 金東吉(한국) 판정 손성찬(북한) 카와드(이라크) 판정 엄포나마하(태국)
▲페더급 朴基哲(한국) 판정 히구찌신지(일본) 여연식(북한) 판정 미달(시리아)
▲라이트플라이급 준결승 허영모(한국) 판정 세이끼(일본) 카비나스(필리핀) KO 일리복스(파키스탄)
▲플라이급 태라포른(태국) 판정 권채오(한국) 바바르알리(파키스탄) 기권 이베(일본)
▲밴텀급 쫑스리(태국) 기권 북타르(파키스탄) 문성길(한국) 판정 편성오(북한)

레스링

▲48kg급 3·4위전 孫甲道(한국) 판정 토르킨(이란)
▲57kg결승 도미야마(일본) 판정 무하마드(이란) ▲동3·4위전 쿠마르(인도) 판정 이종영(한국)
▲68kg급 3·4위전 柳寅卓(한국) 12―0 싱(인도)
▲82kg급 3·4위전 박지홍(북한) 폴 몰림(시리아)
▲52kg 4회전 金鍾奎(한국) 폴 안좋(아프가니)
▲62kg 3회전 李正根(한국) 판정 안키(몽고)
▲74kg 2회전 高顯源(한국) 폴 알리(이라크)
▲90kg 2회전 마지브(이라크) 판정 星勇釣(한국)

농구

▲남자결승리그 한국 97(50―47, 47―42)88 인도 (5승)(4패)

배구

한국남자배구는 올해 NHK배 대회등 두차례의 대전에서 모두 일본을 이겼으나 가장 중요한 이벤트에서 참패당했다.

▲결승리그 2차전 일본 3(15―12, 9―15, 15―13, 15―9)1 한국 (2승)(2패)
▲여자리그 한국 3(15―0, 15―2, 15―0)0 인도 (3승1패)(4패)

사격

▲스탠더드권총개인=①朴鍾吉(한국) 565점 ②차리(인도) 565점 ③벵제닝(중공) 564점
▲동단체=①일본 2、235점(경사 1、185점) ②중공 2、235점(경사 1、177점) ③한국 2、234점 ④북한 2、201점

女농구 오늘 中共과 爭覇
하오 5시에 마라톤 출발

테니스

▲여자단식결승 이노우에(일본) 2(6―4, 4―6, 6―4)1 金壽玉(한국)

배드민턴

1일열린 여자복식 준준결승에서 金鍊子·柳尙希조는 1시간10분간 접전끝에 우승후보로꼽히던 중공의 슈롱·우지엔조를 2―0으로 물리치고 준결승에 진출했다. 배드민턴서 한국이 중공을 물리친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金·柳조는 80년도 복식 세계챔피언 일본의 요네구라조와 준결승전을 벌인다.

▲여자복식준준결승 金鍊子·柳尙希(한국) 2(18―14, 15―5)0 우슈·지엔롱(중공) 黃善愛·姜幸淑(한국) 2(15―7, 15―9)0 아마카디·미싱(인도) 도꼬다·요네구라(일본) 2―0 응린·롱와이(중공) 우디·시·림 2―0 나기다·이(인도)
▲혼합복식준준결승 수지아마·다트마얀티(인도네시아) 2(15―6, 15―6)0 崔東學·柳尙希(한국) 싱드·사기(인도) 기권 朴柱奉·姜幸淑(한국)

육상

▲여자2백m=①히로미·이소자끼(일본) 24초22 ②우샤(인도) 24초32 ③吳明姬(한국) 24초49

◇北韓축구선수들 亞洲대회에 오점 남기다 북한 GK 김광일⑬, FB나봉기(17번) 등 선수들과 임원들이 심판을 집단구타, 印度경찰이 심판을 구출하기 위해 달려오자 이를 저지하고 있다. 【뉴델리AP特約=聯合】

쿠웨이트에 蹴球 敗하자
北韓、심판구타 亂動

【뉴델리=聯合】제9회아시안게임폐막을 4일앞둔 30일밤 축구준결승전에서 북한선수들이 심판을 구타하는등 난동을벌여 큰 오점을 남겼다.

이날밤 7만관중이 지켜보는 가운데 네루스타디움서벌어진 북한과 쿠웨이트간의축구준결승전에서 2―3으로 북한이 패한채 경기가 끝나자 심판판정에 불만을 품은 북한선수들이 泰國주심 G·비지트씨를 주먹으로 구타하는등 집단폭행을 가했으며 응원석에 있던 북한응원단도 이에 합세, 그라운드로 뛰어들어 난동을 부렸다.

운동장에 배치된 印度경찰들이 말리려하자 응원석에있던 北韓응원단은 물론 VIP석에있던 임원들까지 들고있던 피키트와 의자등을집어던지며운동장으로난입했다.

사건의 발단은 후반시작 8분만에 북한이 선취점을 올린후 후반35분께 북한선수들이 반칙을 범해 비지트주심이 페널티킥을 선언한데서비롯됐다.

이 페널티킥이 골로 연결돼 1―1타이를 이루자 북한 임원들이 본부석에 몰려가 페널티킥선언이 무효임을 주장, 주심을 교체하라고 요구했으며 본부석측의 설득으로 5분만에 게임이 속행돼 전후반 1―1 무승부를 이룬가운데 30분간의 연장전에 들어갔다.

印경찰, 조사착수

【뉴델리=聯合】아시안게임 축구 준결승전서 쿠웨이트에 패한뒤 난동을 부렸던 북한축구선수및 임원에대한 인도경찰의 조사가 시작됐다.

◇피투성이가된 주심、경찰보호받아 피투성이가 된 泰國의 비지트 주심㊧이 권총을 빼든 경찰관의 보호아래 경기장을 빠져나가고있다. 【신문공동취재단=聯合】

테니스場은 한국 운동장
경험못한 잔디코트 凱歌
申順浩는 3冠王… 한국 3位에 牽引車 구실
끈기와 팀웍이 이룬 성과

한국테니스의 잇단 金메달은 기대 이상의 대성과다.

당초 크게잡아 2~3개의 금메달을 노렸던 한국테니스팀은 지금까지 전7개종목중 남자 단체전(4위)을 제외한 6개종목석권을 눈앞에 두고있다.

한국은이미 여자단체전、여자복식、혼합복식서 우승했고 남자복식도 한국팀끼리 정상을 가리게 됐다.

마지막 남은 남녀단식에서는 金春浩와 金壽玉이 결승에 올라있다. 여자팀의 申順浩는 한국테니스사상 처음으로 3관왕(여자단체·여자복식·혼합복식)에 오르는 장거를 이룩했다.

한국은 이제 명실상부한 아시아테니스왕국의자리를 굳힌것이다.

한국에서는 경험못한 잔디코트에서 거둔 개가여서 더욱 돋보인다.

남자팀은 아시안게임 첫 출전이며 여자팀은 74년대회서 단체전우승、78년에는 李德姬와 楊正順이 단·복식을 석권、2개의 금메달을 획득했었다.

이번 선수단에서 아시안게임 출전경험을가진 선수는 金壽玉과 金男淑(78년방콕)뿐이다.

대회에와서 한국의 가장 큰적은 여자에서는 중공、남자는 지난대회 3관왕인 인도네시아와 인도로 예상했다.

그러나 한국은 단체전의 승리로 자신을갖고 뒤이어 열린 개인전서도 파죽지세로 밀어붙였다. 인도와 인도네시아는 예상외로 초반에 탈락、한국의 우승을 도왔다.

한국이 뜻밖의 전과를 올릴수 있었던 요인은 선수들의 끈기와 오랜훈련으로 다져진 팀웍이었다.

한국대표팀은 80년 11월에 구성된 이래 田昌大만이 부상으로 宋東燮과 교체됐을뿐 그간 3번의 평가전에서 1명도 탈락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2년간 꾸준히 전력을 다져왔다.

全璞大는 서비스앤드발리에 능숙한 공격형선수로 국내제1의대형선수이고、끈질긴 승부근성을가진 金春浩역시 강한 백핸드를자랑한다.

여기에 포핸드가좋은 李우룡、강서비스의 왼손잡이 宋東燮이 가세、한국남자팀은 고른 실력으로특히 복식에서 뛰어난 기량을보였다.

農協소속들인 金壽玉 金男淑 薛旻敬 파워가 뛰어난 申順浩로 짜여진 여자팀도 난공불락의 城을 쌓으며 국제경기서 좋은 성적을 올렸다.

지난해 테니스협회를 맡아 1억원의 중흥기금을 희사、선수들의 사기를 높인 李鍾鎬테니스협회장과 연구파로 알려진 崔富吉(남자) 趙大濟(여자) 코치진의 공로도 큰 역할을했다.

초창기 한국테니스의 기반을 닦은 洪鍾文 前테니스협회장의 공로또한 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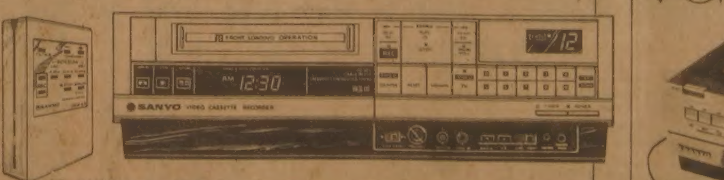
한국테니스계는 당분간 현 대표선수들의 전성시대가 계속될 것이다.

그러나 이들뒤에도 金奉洙 俞鎭先(울산공대)盧甲澤(마산고) 崔股姬(주문진여고) 등 예비선수들과 세계대회우승의 관록을 갖고있는 李郁明 金一順(안양서여중) 등 당당한 주니어선수들이 버티고있어 한국테니스의 앞날은 밝다. 【兪興根기자】

SANYO 년말 대매출

크리스마스 비데오 스페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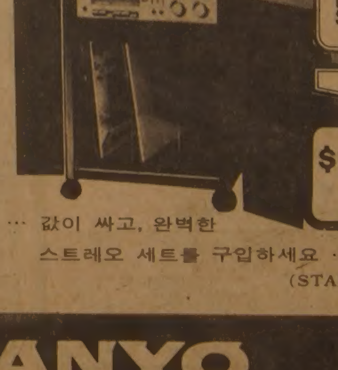
VCR 6300



Wireless 12 Function Remote
105 Channel Capability (105 채널 녹음가능)
8 Day - 1 Event Timer
Reg. $ 1395 Spec. $ 995

VCR 4000

3 Day - 1 Event Programming
Remote Pause/Still Frame
Reg. $899 Spec. $699



Power! Precision! Performance!
THE AUDIO SOLUTION VALUE! NOW ONLY
$ 499.
… 값이 싸고, 완벽한 스트레오 세트를 구입하세요 …
(STAND는 포함안됨)

FINCHWEST MALL
3467 WESTON RD. WESTON.
WESTON & FINCH
☎ 745-5555
아카데미 T.V. STEREO
SANYO Makes Life's Good Things …better
「전 광 재」

★카텐을 원하십니까?
안심하고 믿고 찾는 럭키 Drapery
◉품질 다양
◉저렴한 가격
◉성실한 써비스
4141 Dixie Rd.(딕시 × 버남돌프)
전화 : 625-0698 최 원 보

한국 CLASSIFIED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한국안내광고에서

빅·세븐 선물쎈타
◉중국산·한약·직수입
◉인삼·녹용 :
◉각종 귀국용 선물용품등.
678 Bloor St. W. 전화 : 533-7966
대표 : 김 영 철

소 독

ZAP SUREKILLER 전화: 368-9018, 366-0960
바퀴벌레 개미등 각종벌레 100% 효과
한국식품점 또는 온타리오 전역 공급, 주문배수

시설및수리

"Kim's Installation & Repair"
설계및 실내장식, 건물구조변경, 지하실 꾸밈,
Paint, 각종유리 일체를 취급, 상·하수도 욕탕 각종타일
시멘트공사, 전기시설및 수리(전기제품 포함)
전화 : 425-8585, 535-4441(R) Mr. Kim

"집수리·신건축·목수일"합니다. 빈가게및 건물 주로 변경, 지하실 전문, 진열장 카운터 제작, 스틸 셀빙, 페인팅, 타일, 세멘트일 등, 설계, 실내장식, 신축, 상담, 허가시공. ◉전화 : 669-5784(Mr. 심)

KIMBO ELECTRIC CO. MET. LICENSE E-725
전기시설 · 보수 · 가게신설 · 용량증설등 전기일 일절
전화: (B) 245-5544 (PAGING) 2790, (R) 255-2161 김 부 원

KIM ELECTRIC LTD. I.B.E.W. UNION MEMBER
MET. LIC. E1018, 전기시설·보수·경보장치 설치·Fire Alarm
전화: 438-3795 김영호

KW Electrical Services Met. Lic. E-1267 Miss. Lic. 3312
◉주택, 상점, 공장의 전기시설, 보수, 증설 일체
전화: 791-1973 지경원

한국안내광고는 이민생활의 각종 정보를 제공합니다. 저의 안내광고를 많이 이용하세요. 1주에 $15로 귀하가 원하시는 바를 찾으실수 있읍니다.
한국일보 안내광고 : 533-2361

식 당

아 리 랑 식 당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영업시간 : 월~일요일까지=낮12시~새벽1시까지
716 BLOOR ST. W. TORONTO 전화: 532-2727

거 구 장
5 BETHRIDGE RD. 전화: 742-1618

오리엔탈팔레스·뉴서울식당
529 BLOOR ST. W. TOR.
예약 : 533-3545~6

코 리 아 하 우 스
666 BLOOR ST. W.
전화: 536-8666

한 국 관 628 BLOOR ST. W. 전화: 536-0290, 531-0277
냉면, 곰탕, 갈비및 중화요리 전문.
OPEN 11 : 00AM~1 : 00AM 대소연 200석 완비

클링튼하우스 각종모임(동창회·계등)을 위한 조용한 분위기 별실마련. 간단한 중국요리도 취급(저렴한 가격 봉사) 전화: 535-9541
693 Bloor St. W

호 심 (Korean & Japanese Restaurant)
1st Canadian Place Concourse Level in the Food Market
100 King St. at Bay(P.O.Box 329) Tel: 368-0686

Rose Garden(중국집)각종 파티, 회의실 마련.
홍콩식 중국요리전문, 각종술 취급.
538 St.Clair Ave. W.(Bathurst) 전화: 656-0456, 654-6609

서 울 집 고향의 맛, 한식·중국요리, 각종국수 전문
615 Bloor St. W. 전화 : 532-0602

그라나다(GRANADA)음식점
피로연·회갑·동창회·각종모임·계(예약환영)
920 Yonge St. 전화 : 923-3060

내고향통닭집
고향의 미각, 통닭·김밥·우동·곰탕·만두·빈대떡등···
658½ Bloor St. W. Tor. 전화 : 537-0432

KOTO 일본 음식점. ◉사시미·생선초밥·덴뿌라등···
영업시간: 수~토-5:30pm~11pm 일-5:30pm~10pm
5304 Yonge St.(at Finch) 221-1621 월·화는 휴업

식 품 점

삼복식품
★불고기·갈비는 맛좋고 기름이 적은 삼복식품으로···.
★겨울김장은 시간과 돈을 절약하고 맛이 최고인 삼복김치로 대용하세요.
2437 Finch Ave. W. Weston 전화: 743-8270

한 밭 식 품
◉미시사가지역 교민들께 편리.
◉친절한 써비스, 저렴한 가격
◉일요일은 오후 4시-8시까지 OPEN
466 SOUTH SERVICE RD. MISSI.
전화 : 274-5401

서 울 식 품(동부)
◉친절한 써비스, ◉저렴한 가격.
367 PITFIELD RD. 전화 : 291-8317

서울식품 (서부)
◉친절한 써비스 ◉저렴한 가격 ◉김치전문(도매가격)
1391 Weston Rd. 전화 : 243-9544

제일식품
▲저렴한 가격 ▲품질보장
▲배달함 ▲파킹장준비
712 BLOOR ST. W.
전화 : 532-1054 오 석환

SUN'S FRUIT MARKET
▲각종 한국식품 취급 ▲달걀·감자등 도매, 배달
15 West Dean Pk. Dr.(East Mall Plaza) 622-2643 손덕수

실 내 장 식

Office·Store·Restaurant·Residence
Design, Permit and Construction
FINE DESIGNS 622-5328 조 덕남

액 자

PICTURE FRAME WAREHOUSE(각종액자)
32A REXDALE BLVD. REXDALE
전화 : 746-2120 조 혜 숙 조 성 호

악 기 점

피아노 수리·조율·재생·운반.
중고 피아노 팝니다.
PIANO. TECHNICIAN
전화 : 636-1430(R), 665-8233(B)
주소 : 855 ALNESS ST. UNIT 13 이 상 철

와그너 피아노
(B) 445-1516, 449-8644
(R) 286-1548, 박 성희

양 장 점

샘 터 의 상 실
숙녀복 · 파티드레스 · 웨딩드레스 · 단체주문환영
606 Bloor St. W. 전화 : 535-4441 디자이너 MR. 김

MIRAGE BOUTIQUE(구 코스모스숙녀복집)
각종 고급숙녀복 취급. 704 Bloor St.W. 전화: 530-1870
오전 11시~오후 6시30분. 금요일은 오후 8시30분까지.

에어콘 히팅 냉장고

에어콘·냉동·전기·히팅·세탁기
시설 · 판매 · 수리
정확한 진단 · 예방및 각종 고장 정비
정확한 정비 · 캐나다 최상급 자격증 소지
-24 HOUR SERVICE-
전화 : 366-5655, 531-5440 이 황 영

PALMER'S
에어콘, 전기, 개스히팅, 워킹쿨러, 아이스크림후리저
NEW OPEN STORE SPECIAL SERVICE
시설 · 판매 · 수리
전화 : 494-0512(B) 493-9945(R) 김 봉 균

CENTURY
(냉동기 시설및 수리)
전화 : 221-5441 Mr. Lee

KIM 냉장고 · 에어콘
시설 · 수리 · 판매
전화 : 749-3178 김 진 환

Richvale ◉Heating, Cooling & Electrical
◉24시간 Service.
전화 : 752-0404 Mr. 오

여 행 사

신 세 계 여 행 사
712 BLOOR ST. W.
전화 : 536-2155 김 창 범

서 울 여 행 사
631A BLOOR ST. W.
전화 : 535-6004, 535-8801 최 동 주

제 일 여 행 사
649A BLOOR ST. W.(김종조종합보험 옆)
전화 : 535-2377 유 지 원, 신 용 목

북 미 여 행 사
376 QUEEN ST. E.
전화 : 368-9018, 366-0960 임 태 호

광고료·구독료를 지불하실땐 간편한
CHX. MASTER CHARGE를 이용하세요.
전화로 번호만 알려 주시면 됩니다.
★한국일보 : 533-2361

운 동 구 점

브랜든운동구점 (종합운동구점)
각종단체 유니폼및 트로피, 골프, 스키장비 일체 취급
337 BLOOR ST. W. 전화 : 598-3732 이건영

MUNAMI TROPHY & SPORT
각종단체 유니폼, 트로피, 기념타올, 각종골프채등 취급
880 Ellesmere Rd. Scarboro. 전화 : 298-3584 이기훈

운 전 학 교

아스트라운전학교
761 JANE ST.
전화 : 741-6099(B) 743-3377 Mr. Eastman

Agincourt Driving School(Eastside of Metro Toronto)
18년간의 운전교육 경험으로 성실히 모심. 스카보로(동쪽지역)은 Ride 제공함. 전화 : 291-8304 (불라도)

UNITED DRIVING SCHOOL.
특별할인 수업료 $129. 온타리오 안전 수료증을 발부합니다.
•10시간의 드라빙 수업 •25시간의 교실수업
•본 수업을 끝낸 후 41%까지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을수 있음.
•인컴텍스에서 면제할수 있음. 2300 Lawrence Ave. E. #14
★이 광고를 가져오시면 $20할인 해 드림. 시간당 12불로 특별운전 교습을 할 수 있음. Tel : 431-2596

Professional Instruction 운전지도
온타리오 안전기구와 정부보증
전화 : 626-5715 Mr. McKenzie

의 류 수 선

양장 맞춤·주문배수(수리는 남녀양복 모두 취급)
여성복 Design 변경 또는 재단만 원하셔도 해드림
100 Glenshields Ave. 전화 : 669-5784 Mrs. Kim

인 벤 토 리

INVENTORY - 인벤토리 -
1)STORE인수, 인계 INVENTORY
2)STORE 정기조사 INVENTORY
3)STORE 납세대비
★주야 INVENTORY
TORONTO RETAILERS INVENTORY CO.
전화 : 259-5822·255-8301(B) 252-2963(R) Mr. 오

INVENTORY - 인벤토리 -
주야불문(공휴일 무관)
전화 : (B) Anytime 536-6250 호 세 환

Professional Inventory ◉모든 Store 인수, 인계 일절 처리.
Inven tory Service of Canada
전화 : 665-8300 Nick.

인 쇄

비둘기사진식자인쇄소
87 Apache Trail Willowdale, Ont.
전화 : 493-8894 윤 종 대

칠성인쇄소, 칠성광고
1559A Eglinton W. TOR. ONT. M6E 2G9
전화 : (B)789-7351, 789-7352 대표 : 이 인 용

스피디인쇄소
619 BLOOR ST. W.
전화 : 535-3520 곽 호 중

ADVENT 프린팅
6028 Yonge St. (영×휜치 북쪽)
전화 : B)221-3737, R)224-1133 임 운 철

자동차매매

GRANT BROWN G.M. (폰티악, 뷰익, 캐딜락)
1575 Weston Rd.
전화 : 247 - 7161 이 한 구

MARVIN STARR G.M.(폰티악·뷰익)
3132 Eglinton Av. E. Scarboro.
전화 : 264-2311 조 의 문

North York Chev-Olds Ltd.
○. 시보레, 올스모빌, Van및 각종 중고차(lease도 취급)
○. 가장 오랜 경험의 세일즈맨
○. 철저한 After-Service
7200 Yonge St. (영 × 스틸)
전화 : (B) 881-5000 (R) 221-2979 김 병권

자동차수리

MASTER AUTO BODY
사고차량 24시간 토잉, 사고시 보험관계 처리
수리중 차대여, 페인팅 (Oven Bake Finish)
교포특별대우. 95 Portland St. Etobicoke.
전화 : 255-2111(B), 828-5001(R) 전 기 덕

ANCHOR AUTO BODY
▲완전한 차체수리 ▲무료견적 ▲두꺼운 페인팅
▲토잉 써비스 ▲Rust Proofing
846 RICHMOND ST. W. TOR.
전화: (B) 862-1433 (R) 493-8792 송 창 섭

ALLEN AUTO SERVICE
▲GENERAL AUTO SERVICE ▲TUNE-UP
▲BRAKE JOB ▲TIRE ▲TOWING SERVICE
▲ENGINE OVERHAUL ▲ELECTRIC PROBLEM
▲AUTOMATIC TRANSMISSION ▲OIL CHANGE
주소: 521 KEELE ST. TOR. 전화: 762-3247 정 용 태

O. K. AUTO BODY
자동차 사고 전문
138 SIXTEENTH ST.(New Toronto)
전화 : (B)251-9889, (R)242-4551 김 희 삼

자동차 출장수리 (오전및 주말)
INTERPROVINCIAL LICENCE MECHANIC
전화: 749-9749 Mr. 박

CENTRAL AUTO SERVICE 김 창 세
▲Tune up ▲Safty Inspection Certify ▲Professional Brake Service.
481 Dupont St. 532-3946

ROGERS GARAGE (자동차 수리일체)
20 Rogers Rd. 변 달 원
전화: 651-9324(B), 226-5430(R)

L & K AUTO COLLISION
주소 : 346 MUNSTER AVE.(BLOOR & 키플링)
전화 : B) 231-6951, R) 742-5406 오 세 호

CITY WIDE RADIATOR SERVICE 김 용 환
라지에타 - 개스탱크·히터·워터펌프 수리
전화 : 245-1978(B), 248-6032(R)

FIRST AUTO SERVICE
1521 QUEEN ST. W. 최 이 락, 김 한 호
전화: (B) 532-0200, (R)537-5830

광고료·구독료를 지불하실땐 간편한
CHX. MASTER CHARGE를 이용하세요.
전화로 번호만 알려 주시면 됩니다.
★한국일보 : 533-2361

장 의 사

장의사(R.S.Kane Funeral Directors)
모든 장의관계 일체 취급
4812 Yonge St.E.(세파드써브웨이) 전화: 221-1159

Toronto Memorial Funeral Home
721 Bloor St. W.(at 크리스티 써브웨이)
전화 : 536-6250 호세환, 530-1222 Mr. 왕

카펫 · 카텐

싸다고 소문난 가나안 카텐·카페트·브라인드
2338 LAKESHORE BLVD. W. WINDOW SHADE
전화 : (B)252-4857 (R)252-6602 유 완 덕

카페트 크리닝 : 카페트·소파·췌어·자동차시트
최신 스팀샴푸 크리닝
전화 : 439-6277 Mr.박

타 자 기

공병우 한영타자기 캐나다 총대리점
한글과 영문을 함께 칠수 있음.
전화 : 245-0995 김영수

태 권 도

손명수 태권 · 합기도장 사범 : 손명수
2188 BLOOR ST. W. (At Runnymede 써브웨이)
전화 : 763-1155

완인태권도 完人跆拳道
교포 할인우대
이경태, 이현우사범 직접 책임지도
★중앙도장: 2281 YONGE ST. 전화: 483-4002
★동부도장: 1865 LAWRENCE AVE.E. 전화: 759-2500

광고료·구독료를 지불하실땐 간편한
CHX. MASTER CHARGE를 이용하세요.
전화로 번호만 알려주시면 됩니다.
★한국일보 : 533-2361

하 드 웨 어

Bloor & Bathurst Hardware
전화 : 531-6183 변 의섭

한 방 원

동양한약상사
20여년의 경험과 연구로 귀하의 문의에 응하겠읍니다.
정확한 진맥, 한방처방조제및 치료상담, 녹용, 웅담, 인삼, 우황청심환, 전자침, 지압치료, 자외선치료, 적외선치료
온타리오 면허소유 함병섭 M.C.I.C. R.M.
◉Downtown Office : (416)537-6685 8am~6 : 30pm
621 Bloor St. W. 한국관 맞은편 Toronto
◉Willowdale Office : (416)222-9485 7pm~10pm
244 Finch Ave. E. (Yonge St.에서 Bayview근처)
VISA 또는 MASTER CHARGE 환영

하르빈한약상사
20년동안 침구를 연구함
20년간 한의사 경험(중국의사 자격증 소유)
20년간 하르빈한의대학교수
중국본토에서 한약 직수입 정확한 진단과 처방
(사향, 경명, 주사, 우황, 진주, 웅담, 인삼, 녹용등)
643A BLOOR ST. W. (신용조합 옆)
전화 : (B)536-6854, (R)921-3382 서 춘 봉

보광한약방 〈송계 김남집〉
임상경력 30여년, 사암오행 침구전공
특히 만성질환, 상담환영, 보약 첩약 특선정제
627 Bloor St. W. Ste #202(외환은행 2층 한국관앞)
전화 B)(416)588-1984 〈10:00a.m.-8:00p.m.〉
92 Brantwood Dr. Scar. (R)(416)439-6717

아세아한약상사 (645 Bloor St. W.)
진품 웅담·녹용·인삼·우황·사향· 산삼취급
전화 : (B)530-0522, 530-4900, 968-3586(R)

침뜸, 디스크, 좌골신경통, 관절염 (내장질환) 박 영 숙
진료시간 : 매일10AM~8PM 전화 : 922-7090
700 ONTARIO ST. #517(St. Jamestown)

김명종한약방
2433 Finch Ave. W. #411
전화 : 745-2058

동방체질개선연구원 전화: 745-8899(우 봉)
◉한약과 침·뜸·특수부항료법·지압·단식료법. ◉고혈압·신경통·요통·두통·심신불안과 불면증 ◉2433 Finch W. #516

★한국일보 안내광고 : 533-2361

회계사무소

K.G.S.Tax Accounting
과거 수년간 카나다정부 세무감사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갖고 회계업무와 세무감사에 대한 업무를 봐드립니다.
◉사무실 : 1454 Dundas St. E. Suite 110 Mississ.
◉전화 : 273-7300 공인회계사 이명세

김인규회계사무소 ACCOUNTING & TAX
501 Yonge St. #207, Toronto
전화 : 960-5736(B), 844-0178(R)

정필주회계사무소
Tax Return, Tax Planning
4750 Jane St. Suite. 608 전화 : 661-1819

최태권종합회계사무소(ACCOUNTING & TAX)
개인세무및 보고서작성, 사업회계및 장부정리
637A BLOOR W. 전화 : 533-7573(B)

김명숙 회계사무소
627 Bloor St. W. #302
외환은행 블루아지점 3층 534-3760

차상범회계사무소(Cha's Accounting Service)
3305 Lakeshore Blvd. W. Toronto, Ont. M8W 1M9
전화 : (B)(416)255-8301, 259-5822 (R)(519)653-3329

이경복회계사 C.G.A.
CERTIFIED GENERAL ACCOUNTANT
3416 Dundas St. W. #206. Tor. 전화 : 766-5639

파실 물건이 있으시거나 교환하시고 싶은 물건이 있으시면 저희 안내광고를 이용해 보세요. 그 효과에 깜짝 놀라실 것입니다. ★한국일보 안내광고: 533-2361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한국일보 안내광고＊ 한국안내광고에서

아세아 한약방

◉ 특수한약처방및 침술, 각종보약, 각종병약
◉ 물리치료(식이요법, 단식요법, 무료상담)
◉ 무병장수의 비법은 한약과 건강식품으로
◉ 영업시간 : 월-토: 오전 10시 - 오후 8시

645 Bloor St. W.   530-4900(B)
전화 : 968-3586(R), 530-0522(B).

한국 CLASSIFIED

THE KOREA TIMES Toronto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한국안내광고에서

BLACK SEA Fish Wholesale Ltd.
각종 생선 소·도매함.

〈영업시간〉
월 · 토: 8:00 a.m-5:00 p.m
화·수·목: 오전8시-오후6시
금 : 오전8시-오후7시
16 Osler St.
전화 762-7255,7256,2700

구 인

한식·일식·서양식 겸한 요리사 구함.
전화: 496-2196(6시 이후 연락바람)

맥스밀크에서 금·토·일요일 일할 여자 캐쉬어 구함
미시사가 지역.
전화: 278-4867

Oakville Convenience Store 매니저 구함.
현재 주매상: $8,000이며 스탁은 캐쉬로 원함.
전화: 633-5231(Mrs. 윤), 669-1518(Mr. 유)

좋은 사람 구함. 주유소(GAIN) 경험자는 우대함.
Full Time 또는 주말 Part Time
877 Dundas St.W(Bathurst 서쪽 300m)

입주하셔서 애기돌봐 주실분 구함
전화 : 271-1482

입주하셔서 애기봐 주실분 구합니다.
2살반, 3살반
전화 : 247-0643(오후 8시이후)

Gas Attendent 구함.
미시사가 지역
전화 : 487-2349, 924-0227

웨이트레스와 Kitchen Helper구함. 5304 Yonge St.
(South of Finch) 휜치지하철서 10분거리
전화 : 221-1621, 826-7676 Koto Japanese Rest.

절호의 챤스. 급성장하고 있는 스탁 중개업자가
경험있는 회계사나 또는 Training을
받으실 분 구합니다.
이력서를 보내세요: Goulding, Ross Turner Ltd.
283 Spadina Ave. Suite 208
Toronto, Ont. M5T 2E3

주말에 도넛숍에서 밤일하실분 구함.
금·토요일밤: 밤11시~아침7시.
전화 : 977-0303

여자 룸 메이트 구함.
Bathurst & Finch
전화 : 633-0127(6시이후)

Koto일본음식점 Kitchen Helper 구함.(휜치지하철서 10분거리)
인터뷰 : 11월27일(토) 12월4일(토) 오후2시~5시.
5304 Yonge St. 전화 : 221-1621, 826-7676

1개월간 목공일 하실분(기술 필요치 않음)
AURORA 지역.
전화: 1-727-1021(낮12시~1시 연락바람) Mr. 조

미시사가 거주 젊은 여자분 구함. 1983년1월4일부터 7시부터 8시간. 23 Helene St. Missi Port Credit 역전. Century Burgers
희망자 방문요 5시 이후

가게를 파실려구요?
사람을 구하신다구요?
한국일보 안내광고를 이용하세요.
$15.(1주일간)로 만족한 결과를 얻으실 것입니다.   광고국: 533-2361

기 타

걱정이 있으신 분은 오십시요.
Card, 손금, Tarot등으로 당신의 걱정을 해결해 드리겠읍니다
전화 : 652-1280(Mrs. Adroe) 636 Vaughan Rd. #1(at Oakwood St.)

구 혼

결혼상담, 전자침(한국기원내)
653A BLOOR ST. W. TORONTO.(18세부터 60세 사이)
전화 : 533-0168 매일1시-10시 Mr. 최·김

한국기관·해외지사

총영사관	598-4608
무역진흥공사	977-8784
외환은행	364-2890
외환은행 Bloor지점	533-8593
한일은행	865-0456
조흥은행	363-3448
KAL	862-8250
금호실업(박수웅)	224-2491

교 민 단 체

한인회	755-9288
노년회	755-8079
실업인협회	533-7923
Y.M.C.A.	536-1166
코리아타운번영회	532-2727
동우회	261-2917
호남향우회	651-8835
캐나다체육회	248-8846
한인신용조합	533-9387
천주교신용조합	363-0097
한인태권도협회	630-3095
상공인협회	421-9144
이민사자료연구실(한국일보사내)	533-2361
'88 올림픽후원회	623-3674
승공문화협회	444-3658

개 인 지 도

피아노 교습생 모집
성심껏 지도. 초보자 환영. DIXON & KIPLING
전화: 243-7752(749-1316(낮·Answering Service) Jennifer Hong

양장, 재단 재봉 개인지도(휜치 & 베더스트)맞춤, 수선(남녀복 아동복 취급함)재봉은 하지만 재단못하시는분 특별지도.   전화 : 665-4230 Mrs. 장

광고료·구독료를 지불하실땐 간편한
CHX. MASTER CHARGE를 이용하세요.
전화로 번호만 알려 주시면 됩니다.

매 매

가정용 스토브(오븐) 팝니다.
전화 : 749-2297 Mr. 조(오후6시 이후)

77년도 Chev. Station Wagon 8기통
65,000마일 $2,000 (성능좋음)
전화 : 288-1378 강

Hasty Market Convenience스토아 프렌차이스 매매
년매상 : 약 $1,000,000.
전화: (416)922-7849 Ken or Gord.

해밀턴 큰길에 있는 플라자내의 경쟁없는
그로서리 스토어. 주매상 5천보장.
렌트 700불. 7년간+10년옵션.
Asking $52,000+스탁. 좋은 조건으로 양도함.
8Door Walking Cooler, New Equipment.
문의처 : 1-388-4825

"가 구"
직접 공장에서 만들어 파는 까닭에 여러모로 고객에게 도움을 드립니다.
1) 3 pcs. Wall Unit. $259
2) 7개의 설합달린 책상 $65
3) 거울달린 화장대 $79
4) Bed room set(9 pcs) with mattress $399
5) 5 pcs. Kitchen Set (식탁 + 4개의 의자) $89
6) 쇼파 4 pcs. set. $399   etc.
Rema furniture   937 Queen St. W.

건강이 나쁜 관계로 급히 우체국 달린 버라이어티 스토아 매매. 시민권자나 이민자라야 함. 주 Net $550(경비제외하고)
◉아스킹: $15,000+스탁   전화 : 691-5297 Mr. Gilbert

버라이어티 스토아 매매.
◉주매상 : $3,500
전화 : 255-7597

밀크스토아 매매.
주매상 $3,500~4,000
비데오 머신에서 월 $800~900
5887 Bathurst St.(N. of Finch)
직접 내방 바람. 빌딩도 살 수 있음.

드라이 크리닝 매매
★ 기계있음.
전화: 923-2785(Anytime)

성업중인 그로서리스토아 급매. 주매상: $6,500~$7,000
아스킹: $69,000+스탁. 렌트: $650
오타와지역. 전화 : (613)-238-3837

Pickering에 있는 버라이어티 스토아 매매.
(빨리 팔기위해) 아스킹 $63,000 내렸음.
주매상: $7,200. 1,200 sq.Ft. 렌트: $500.
Plaza 내에 있음. 주인이 이사함.
Bagot Realty Inc. (Rlts.)
1-579-4010 or. Frank Magnus 683-8154(저녁)

Drycleaner's Depot 매매.
◉스카보로 지역. ◉좋은 리스.
전화 : 751-7615

빌딩달린 버라이어티 스토아 매매. ★좋은위치·경쟁없음
Set up한지 2개월. 주매상: $3,700+비데오(월 500수입)
증가중에 있음   ★46 Annette St. TOR.

버라이어티 스토어 급매
주매상 4,000불 이상, 월세가 확정된 7년 리스.
전화 : 421-1014 Mrs. 안

플라자내에 있는 10개 스토아 매매. 1.2 Acres.
둘레 주변에 파킹장 있음. 새롭고 좋은 주택가.
1년 Gross 인캄 $64,000. 아스킹 $500,000.
1st 몰개지 $126,000. 13%. 다운 $100,000
DORIS BURDA 763-5555
R. CHOLKAM & CO. LTD.

그로서리 스토아 매매.
올림픽스타디움 옆에 위치하고 관광객이 많이오는 좋은 위치. 배달이 없으며 두사람이 쉽게 운영할수 있음.
Beer, Wine 라이선스 있음.
시간: 아침9시~저녁11시. 주매상: $8,000
몬트리얼 지역: (514)256-8451

컴퓨터 식자 서비스 : 533-2361

댄 스

부루스, 지루박, 도롯도, 탱고, 월츠, 폴카,
디스코, 차차,··· ◉개인, 소구룹, 단체.
문의 : 742-4208 김유수 (출장·주말지도)

아파트렌트

간이모텔   단기·장기 불문, 여행자에게도 크게 편리함. 693 Bloor St. W. Clinton House(Christie 지하철정거장옆 아리랑식당 앞) 전화 : 535-9541

현재 변호사 사무실 2층 렌트합니다.
850 Sq. Ft. 484 Bloor St.W.
전화 : 638-0782

강찬영변호사 사무실내에 600 Sq.ft.
사무실 렌트 합니다.
410 Dundas St. E. 전화 : 537-3171

---

4 Bed Rm. House전체를 세놓고자 함(Brampton지역)
2Bath Rm. Family Rm. Fire Place차고등.학교와
Shopping Plaza근처에 있음. 전화: 593-8943

콘도미니움아파트 렌트. 3Bed Rm.(Jane & Eglinton지역)
◉월$700(다 포함됨) 실내수영장·사우나·체육관 있음
전화: 535-8801

가 구 점

ecosys   Ecosys Furniture
• 고급가구 전문 • 저렴한 가격 •신용보장
2300 Yonge (영 × 에그링톤)
전화 : 486-0397 (김 만구)

LEON'S 가구·카페트·전자제품
20 McLevin Ave(세파드×마캄)
전화 : (B) 291-3818. (R) 749-9687. 746-0981 조석민

간 판

각종 고급간판 제작 및 수리 (CITYLITE SIGNS CO.)
777 WARDEN AVE.
전화 : 751-9236. 757-2106 홍 진 표

J Studio Signs (각종 간판. Silk Screen. Graphic)
127 Manville Rd.   at Warden & Eglinton
전화 : (B)755-9087. (R)755-5304 이종소

꽃 집

다우스 꽃집 (DAWES FLORIST)
◉각종 어렌지먼트 & 각종 플랜트 •각처 주문배달함.
464 DAWES RD.(VICTORIA PK. & ST. CLAIR)
TORONTO. ONT. M4B 2E9
전화 : 751-5851(B) 757-6711(R) 이 동환

제인·팍 꽃집(Jane Park Plaza)
각종행사·생일·결혼·장례꽃 주문·배달함.
875 Jane St. Tor. 전화:B)769-0609 R)242-5194(여정웅)

정 손 꽃 집 (MARKLANDWOOD PLAZA안)
4335 BLOOR ST. W. ETOBICOKE
전화 : 622-8516(B). 279-3719(R)허소피아

한인경영 최대꽃집 Yonge Flower Shop
◉각종 플랜트. 어렌지멘트
◉화환 전문(일류 꽃전문가 고용)
•토론토 전 지역 배달
589 Yonge St.(영×웰스리)
전화 : 960-6265 Mr. 김

도 서 판 매

World Book (백과사전).
전화 : 533-2364. 242-5774 (Mrs. 김)

메 리 야 스

온가족이 애용하는 고급내의 쌍방울메리야스
602 BLOOR ST. W.
전화 : 532-5394(B). 742-0737(R)

쌍방울 메리야쓰
WESTON MALL(웨스톤 × 휜치)
전화 : 746-3458

미술연구소

삼우스튜디오(SAM WOO STUDIO)
Free Workshop(성인 미술교실)
58 Wade Ave. Tel : 537-7630

미 용

킴스미용실
(코리아하우스 뒤) 일·월요일 휴무.
전화 : 532-7094(B) 138 0628 (R) Mrs.Oh

스타미용실 미세스 김
남녀 커트. 파마전문. 9a.m-8p.m. 일. 월요일 휴업
2437 Finch Ave. W. (B)741-4410 (R)742-0827

소니아미용실 신부화장. 남녀커트. 파마전문
2085 Lawrence Ave. E. Jovan Plaza unit 3 (우체국옆)
전화 : (B)759-8854. (R)755-2759 미세스 허

로마노미용실 김 조 자
330 Dixon Rd. W. (Islington 과 Kipling 사이)
전화 : 248-2957(B) 247-6875(R)

마야미용실   632 Bloor St. W.
한국관앞 서울여행사 2층
전화 : 588-1480(B). 924-0221(R)

Annie's 미용실. ◉여드름. 주름살 치료 전문
◉남녀 파마. 커트 전문. 812 Queen St. E.
전화 : 463-9071 Mrs. 리 (퀸×브로드·뷰)

레이몬드미용실(수잔:한국인)-◉남·녀 컷. 파마전문
월-금: 오전9시-오후8시. 토: 오전9시-오후5시
2491 Lakeshore Blvd.(레이크셔×로얄욕) 전화: 255-4745

빵 집

HEALTH BREAD BAKERY
결혼. 생일. 파티케익등 전문(배달가능)
534 St. Clair Ave. W. 653-1149 Mrs. 배

Honey Home Bake Shop - 결혼·회갑·생일등 각종 케익과 샌드위치 Tray·샐라드 주문배달.
전화 : 961-9780 Mrs. 장 276 Dundas St. E.

번역및통역

번역통역(통역은 월요일만 합니다.)
CHARLES YU(유좌석) 10 SUNRISE AVE UNIT 203.
전화 : 759-9505(5시 이후)   M4A 2R1

변 호 사

RALPH M. LEVINE B.A., LL.B.,(Barrister & Solicitor)
627 Bloor St. W. #302(외환은행 블루어지점 3층)
전화 : 533-8539 ★ 통역 항상 가능함.

보 석

Young Sook's 보석상
★각종 보석 취급. 최저가격. 중고교환가능
215 Yonge St. (B)368-7961 (R)690-5217 민영숙

보 험

CANADA LIFE (강학수)
전화 : 868-0922

김종조 종합보험
전화 : 535-7200

임페리얄 LIFE (김홍량)
전화 : 961-3774

SUN LIFE (배용빈)
전화 : 497-3800

조규혁 종합보험
전화 : 233-6236

SUN LIFE (윤호영)
전화 : 922-3111

SUN LIFE (김신명)
전화 : 922-3111(B) 791-8196(R)

SOVEREIGN LIFE (강경범)
전화 : 233-6236(B) 279-7774(R)

부 동 산

복덕방 ROYAL TRUST CO.(로얄 트러스트)
곽 석 용 전화 : (B) 752-3111. (R) 298-2546

D.F.McALLISTER R.E.LTD. 김 시 성
투자전문(IC & I)
전화 : (B) 497-0600

이 훈 모 부 동 산
전화 : 225-1204

황용현부동산(주택매매. 사업체일체.)
(B)449-8644~5 (R)286-1548
★이헌영 (R)686-0207 ★강정숙 (R)244-8918

CANADA PERMANENT TRUST CO.
황 순일 전화: 481-3443(B) 745-5485(R)

SINCERE REALTY INC. (채준성 : David Chae)
주택 사업체등 모든 부동산 취급.
전화 : (R)633-7892. (B)497-8900

A.E. LEPAGE (우 덕 이)
전화 : 741-9170

이 대 환 부 동 산
전화 : 535-1251

사무용구및 계산기

S B S 캐쉬 레지스터 퀸스웨이×이슬링톤
각종 전자계산기 취급 (2년간 보증)
전화 : 252-7377(B) 762-4536(R) Mr. 안수일

사 진

새 한 칼 라 현 상 소(R)654-5691 전화 : 535-7772
결혼·돌사진·각종 증명사진·회갑·출장환영
현상 인화 확대. 비데오 촬영. 630 BLOOR ST. W. TOR.

무 지 개 칼 라-촬 영 전 문
COMMERCIAL·ART PHOTOS·WEDDINGS·VIDEO촬영
36 Neapolitan Dr. 전화 : 438-4435 오후9시30분까지

킴스 카메라.
각종사진 현상. 증명사진. 회갑·결혼사진등.
619 Bloor St. W. 534-1085

상 담

김보경 박사 (심리상담. 성인및 아동)
연락처: 1-(705)-549-3454(Penetang. Ont)
" (토요일): (416)-923-3336(토론토)

생 선

K & R Sea Food
▲얼리지 않은 각종생선. ▲싱싱한 회감 주문받음
765 The Queensway & Royal York. 전화 : 259-1585.

Forest Glen Sea Food.
3413 Fieldgate Dr. Missi.
(Bloor & Two Block East of Dixie) 624-3092   임호빈

선 물 센 타

거북이 선물쎈타   617 Bloor St. W.
전화 : 535-2143(B)

빅·세븐 선물쎈타   678 Bloor St. W.
전화 : 533-7966

T. V.

◉ 각종 비데오 테이프 대여전문
◉ 품질보장. 신용본위 ◉ 비데오 기계. T.V.판매
전화 : 532-0210 손 병 헌

아카데미 TV & STEREO CO.
SANSUI. BRAUN. ZENITH. TELEFUNKEN 등
• 특별대매출. ◉ 월부판매 알선
★ 동부 255 MORNINGSIDE AV.   282-2820
★ 서부 Finch West Mall(Finch & Weston) 745-5555

STEREO KING   전화 : 766-4770
◉ 고급 라디오. 전축 전문센타
◉ 전축 스테레오 수리전문
◉ 비데오 취급
2989 DUNDAS ST. W. (킬 × 던다스)

T.V 수리는 431-0102
전화 : 431-0102 Mr. 박

대일 오디오 비데오
T.V.. 전축 스테레오. 각종 전자제품
전화 : 270-0679. 279-3174 임문호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한국일보 안내광고＊ 한국안내광고에서